

요즘 대세는 87년생 스타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제3078호 www.metroseoul.co.kr



류현진 내년목표는 200이닝



'제69주년 경찰의 날' 밝은 경찰대학생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경찰대학생들이 축하공연을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념식에서 업무 중심 조직을 구축해 기본부터 잡아가는 유능한 경찰, 당당한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뉴시스

구직·직장인 애환 TV가 달랜다

굴지의 통신사 신입사원이 된 연예인 8명의 첫 출근날. 출연자 절반이 지각해 혼난다. 방송인 은지원은 청바지, 가수 예원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상사에게 지적 받는다. 고물상 같은 창고를 정리하던 방송인 김성주와 가수 박준형은 "이 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지? 왜 이유도 설명 안하고 일을 시켜?"라며 상사의 일방적 태도에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상사가 오자 아무일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가수 로이킴은 사무실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퇴근 시간만 기다린다. 아무도 챙기지 않는 신입사원에게 사무실은 가시 방석이다. -tvN '오늘부터 출근'



'나 출근합니다'·'오늘부터 출근' 등 방송 잇따라
취업전쟁·치열한 경쟁을 집중 조명…시대상 반영

이 시대 구직자와 직장인의 고민을 TV가 달래고 있다.

올 가을을 들어 취업과 사회 생활을 소재로 한 방송물이 잇따라 전파를 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구직자의 답답함과 사회생활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이들 프로그램은 시사교양, 예능, 드라마 장르를 망라한다. 콘텐츠는 당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취업과 직장 생활로 힘들어하는 현대인이 많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KBS는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 '나, 출근합니다'를 지난 12일부터 방영하고 있다. 기대 수명에 비해 직장 근속이 짧아지는 현실에서 중장년 재취업 열기는 젊은층 못지 않다. 방송에서 취업 멘토로 등장하는 최창호 잡코리아 사업 본부장은 "은퇴하면 집에서 쉬거나 자영업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 하지만 수많은 퇴직자들이 최신 채용 방식을 몰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 방송 tvN은 예능 프로그램 '오늘부터 출근'과 인기 웹툰 원작의 드라마 '미생'을 직장인 시청률이 몰리는 주말 저녁 시간에 집중 편성하고 있다. 두 방송 모두 직장인의 비애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인기를 얻고 있다. 네이버 TV캐스트는 노량진 취업준비생 5명의 이야기를 다룬 웹드라마 '취업전쟁'을 서비스하고 있다.

직장인 방송물 유행에 대해 취업포털 사람인의 임민욱 홍보팀장은 '위로와 공감'을 인기 요인으로 분석했다. 임 팀장은 "치열한 경쟁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마음놓고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직장인의 애환을 방송에서 공감해주니 시청자들이 위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방송물이 극적 효과와 시청률을 위해 사회 문제를 유희적으로 다룬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등장인물에 집중하느라 세태를 구조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인 출신 이의용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미디어가 일자리를 다루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 '저 사람처럼 일해야 된다'란 경직된 틀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일자리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고 직업의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정부, 대북 전단 저지 시사
"경찰이 안전 조치 가능할 것"

정부 당국자는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 중인 대북 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위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일부 민간단체가 예고한 25일 경기도 파주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정부가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전단 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안전 조치 문제는 경찰이 경찰 직무법에 따라 판단해 조치하는 것이어서 정부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북 전단 살포 제한의 주체에 대해 "(정부) 부처끼리 상황이나 정보는 공유하되 경찰 측에서 공유된 정보나 상황을 바탕으로 자체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 조치를 취할지는 경찰 직무를 규정한 법이 있어 경찰 측에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 전단 10만장을 뿌리겠다고 최근 밝혔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시 '직접 조준 격파 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조현정기자 jhj@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박 대통령,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4차 한중지도자포럼 참석차 방한한 탕자쉬안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접견하며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TF팀 운영

여야 합의…국민안전특위도 설치하기로
국감 종료 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여야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국민안전 관련 특위를 설치하기로 21일 합의했다.

또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여야가 각각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감이 종료된 이후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고 이달 31일, 11월 3~5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2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달 30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종전까지 이틀에 걸쳐 이뤄졌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전 중에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수당이 먼저 하고 다음날 소수당이 하는 식으로 하루에 한 사람씩 하는 게 관행이다. 올해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이 뒤로 많이 밀리자 시간 절약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코리안리 자만해선 안된다

기자 수첩
김 형 석
<금융시장부 기자>

올 초 급물살을 타던 제2재보험사(가칭 팬아시아리)의 설립이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팬아시아리 설립을 주도하던 김기홍 팬아시아리컨설팅 대표가 최근 KB금융 회장 후보로 선정되자 대표직을 수행하는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사임했기 때문이다.

당초 팬아시아리의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ING생명이 2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목표인 3000억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흘러 나왔다.

이어 아시아 캐피탈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팬아시아리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말까지 예비인가 신청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선 김 전 대표가 내부갈등이 잦았다는 말부터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압력, 투자자금 유치 실패 등 뒷말이 무성했다.

제2재보험 설립이 무산되자 코리안리는 '앓던 이가 빠졌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제2재보험사가 설립되면 기존의 독과점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리안리는 지난 1997년 국내 재보험시장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국내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업계 내부에선 제2재보험사 설립을 반기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일부 재보험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코리안리의 횡포가 심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매년 재보험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온 터라 내년에 제2재보험사 설립이 다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36년간 독과점해온 코리안리가 자만해선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례회동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 새누리당 이 원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청와대 "김무성 개헌 발언 실수 아니다"

김 대표 "대통령께 이미 사과…더 이상 언급 안할 것"

청와대는 21일 '김무성발 개헌론'에 대해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을 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게 정상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기한 개헌 불가피론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가 지난 16일 중국 방문 시 "정기국회가 후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하루 만인 17일 "제 불찰이었다"며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께서 중국에서 가서 기자 질문에 대답을 하셨고, 그게 계속 보도가 되자 내 불찰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의 '개헌 불찰' 발언이 청와대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항의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김 대표가 물러선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주장도 하는데 저희들은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미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며 "더 이상 개헌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北, 김정은 잠행 중 노동당 간부 12명 처형"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기간에 노동당 간부 12명이 처형됐다고 북한 소식을 주로 다루는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20일 보도했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6일 노동당 중앙당 과장 3명과 부하 7명 등 10명이 평양 교외의 강건종합군관학교에서 총살됐다고 이 매체의 북한 내부 협력자가 전화로 알렸다.

또 지난해 12월 숙청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결탁한 혐의로 노동당 중앙당 과장과 해주시 노동당 최고 책임서기가 11일 같은 장소에서 총살당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으로 승격

● 현재 치안감인 인천지방경찰청장이 한 계급 높은 치안정감으로 승격된다.

경찰청은 21일 인천청장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경찰청 차장, 서울청장, 경기청장, 부산청장, 경찰대학장 등 5명이었던 치안정감에 인천청장이 포함되게 됐다.

한·미 외교국방 '2+2 회의'

윤병세·한민구 장관 방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 참석차 22일 미국을 방문한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2+2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 정부 대표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이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과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북한·북핵 문제, 범세계적인 협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을 포함,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관련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국가(IS)' 및 에볼라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기자

대입원서 한번만 쓰면 된다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시행…내년 정시부터 적용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응시하는 2016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대입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고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초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수험생이 대입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입학을 원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수시는 6회, 정시는 3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2016학년도 수시 모집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서 그 해 정시부터 전면 적용된다.

원서 작성 시 수험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암호화되고, 대교협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상황을 상시로 점검한다.

교육부는 나아가 대입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입입학 정보포털'을 2016년 3월에 개통해 수험생들이 2017학년도 수시전형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입 정보포털은 각종 대입정보가 탑재될 뿐 아니라 사교육업체의 입시컨설팅에 대응하는 대입상담업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면서도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175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가택수사를 벌여 귀금속과 골프채 등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하고, 에어컨과 냉장고 등 이동이 어려운 물품은 보관 후 공매 처분한다.

175명은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5579명(체납액 총 1515억원)의 거주지를 전수조사해 고가 대형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경영인·의료인·정치인 등 사회 저명 인사 위주로 추려낸 것이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또 수십 차례 외유성 출입국을 하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서울시의 납부 독촉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조현정기자 jhj@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PR공모전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하는 '제2회 대학생 PR공모전'이 '국가장학금 대국민 체감도 제고 홍보'라는 주제로 20일부터 개최됐다.

국내 대학(원)생 팀(4인 이내) 또는 개인으로 응모가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의 효용과 확대를 널리 알리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영상 또는 인쇄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영상과 인쇄 부문에서 최우수상(1팀)·우수상(2팀)·장려상(3팀) 등 12개팀에 장학금 1460만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를 통한 인기상도 신설된다.

마감은 다음달 16일까지며 온라인 페이지(www.kosaf-contest.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인 정모 사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내 비서실장실과 재무과 사무실, 정 사무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 사무관은 각종 공사와 자재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 대표 윤모씨에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정 사무관의 지인 현모씨와 윤씨 등 모두 3명을 체포했다.

정 사무관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감사관실 등에 근무했고 7월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일해왔다.

검찰은 정 사무관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뇌물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기상 변화 관찰하는 학생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ECO-EXPO KOREA 2014)'에서 학생들이 기상청 부스를 찾아 지구의 기상·기후 변화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3차원 '지구·온(ON)'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여대, 재학생 전공박람회

서울여대는 20일 교내 학생누리관에서 '2014 전공몰입을 위한 전공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서는 각 전공 교수들이 학생들과 직접 1대1 상담을 진행하며 생생한 학과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융합전공(복수·부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

재학생들은 상담을 받는 한편, 각 전공별 진출분야, 교과목 설명, 전공 관련 직종 설명회 등의 정보가 담긴 '전공가이드북'을 제공받았다.

경희사이버대, 새 수업평가제

경희사이버대는 이번 2학기부터 교수·학생·조교가 모두 참여하는 새 수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새 수업 평가는 평가 문항이 기존의 2배 이상인 41개로 늘어났으며, 교수·학생·조교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기 평가' 항목도 신설된다.

자기 평가는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반성을 넘어 자기 점검, 향후 방향 설정까지 가능하게 한다.

수업 평가 횟수도 기존 학기당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가을 걸친 '낙엽 자동차'

metro Russia

구경꾼 위해 30km 서행

자동차를 노란 낙엽으로 꾸민 러시아 남성이 화제다.

'행복 전도사'를 자처하는 데니스 살리킨은 "몇 해 전부터 매년 가을이 되면 예쁜 낙엽을 모아 자동차를 꾸미고 있다"며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웃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한다"고 밝혔다.

살리킨은 몇 년 전 비가 내리던 가을 날 우연히 자동차 위에 떨어진 단풍잎과 은행잎을 보고 '낙엽 자동차'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곧장 근처 공원으로 가서 예쁜 낙엽을 500장 주워 자동차를 멋지게 장식했다.

살리킨은 낙엽을 차에 붙이는데 세척제를 사용한다. 나중에 낙엽을 쉽게 떼어내기 위해서다.

그는 "이 특이한 접착제는 접착력이 강하지 않다"며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며 사람들이 낙엽 자동차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무료한 일상에 지루해하며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다"며 "길을 가다 낙엽 자동차를 보면 한번쯤 미소 짓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알렉세이 쉬리킨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욕조서 감전사 사장 범인은?

metro France

40대 가사도우미 체포


femme de ménage jugée pour
: de sa patronne

-2014 16:50

Une quadragénaire, femme de ménage de profession, comparait à pa
ndredi pour "vol avec violences ayant entraîné la mort" à l'encontre
n décembre 2011 dans le 15e arrondissement de Paris. L'accusée rec
joux mais nie les autr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e ménage comparait pendant cinq jours pour "vol avec violences ayant

프랑스에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가사도우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브니마 베(Benima B)'라는 40대 여성은 20일 파리중범재판소에 출두했다. 지난 2011년 12월 13일 파리 15구에서 일어난 가정집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당시 숨진채 발견된 남성은 한 기업의 사장이었다.

◆ 자살로 위장된 타살?

숨진 60대 남성은 욕조에서 발견됐으며 현장은 자살 사건처럼 보였다. 서랍장 위에서 유서와 기업 관련 서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은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사망한 남성은 누군가에 의해 물 속에서 감전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가정부 '브니마 베'는 당시 집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집에 들려 고가의 귀중품을 훔쳐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브니마 베의 변호를 맡은 므 피볼 코타 변호사는 "절도를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사람을 죽인 범인으로 오해받고 있다. 그는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프랑스어를 읽을 줄도 모르기 때문에 유서를 조작했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장에선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렐리 사로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美 에볼라 환자 생사 갈린 이유

체액 관리로 탈수 막고 생존자 혈액 투여 때문

지구촌을 강타해 5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이에 감염된 환자들이 비슷한 치료를 받고도 생사를 달리하는 이유는 뭘까.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의사 켄트 브랜틀리와 릭 새크라, 간호사 낸시 라이트볼은 모두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됐다. 반면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자인 토머스 에릭 던컨과 스페인에서 치료를 받은 미겔 파하레스 신부 등은 비슷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했다.

20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검증된 에볼라 치료법은 없지만 신속한 초기 진료와 생존자 혈액 투여 등이 환자들의 생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크라는 완치된 브랜틀리의 혈액을 투여받았지만 던컨은 혈액형이 달라 혈액을 투여받지 못했고 결국 숨졌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톰 프리든 소장은 이와 관련, "에볼라 환자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액을 관리해 탈수 증상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병원 의료진이 에볼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AP 뉴시스

실제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비교적 이른 시간 내 완치될 수 있었던 것은 탈수 증상을 막고 에볼라 항체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존자의 혈액을 투여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아프리카 환자들의 경우 의료 환경이 열악해 서둘러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지역에서 4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다.

◆ 온몸 감싸는 보호장비

한편 CDC는 이날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위해 강화된 안전지침을 발표했다. 텍사스주에서 간호사 2명이 에볼라 환자 치료 도중 잇따라 전염된데 따른 조치다.

새 안전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에볼라 환자를 대하기 전 보호장비 착용과 탈의법을 반복 훈련으로 숙지해야 한다. 보호장비에는 상·하의가 연결된 보호복과 방수 가운, 장갑, 인공호흡기, 안면 보호대, 일회용 두건이 포함된다. 의료진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 것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오바마 도넛 배달부 변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의 11·4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펼치던 중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도넛을 들고 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中 인내심 시험하지 말라"

홍콩 행정장관 경고…"보통선거권 갖게 될것"

"중국 정부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렁춘잉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21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화 시위대에게 이 같이 경고했다.

렁 장관은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홍콩의 소요 사태에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홍콩 측에 상황 대처를 맡겨두고 있다. 이런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 시위를 촉발한 요인인 참정권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홍콩에서 보통선거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렁 장관은 중국의 요구대로 후보추천위원회를 이용해야 광범위한 계층에게 대표권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광범위한 대표권이라는 의미는 숫자상의 대표권이 아니다"며 "만약 전적으로 숫자놀음으로만 간다면 빈곤층이 선거 과정에서 득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렁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민주 진영의 새로운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시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꼬집었다. 일반 대중이 홍콩을 잘 통치할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없다는 홍콩 엘리트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우주 정복'에 나설 인재 찾습니다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엔씨소프트 ㉔

스펙 대신 열정·패기로 신입 선발
스파·결혼식장 갖춘 사옥 눈길
재무구조 탄탄…퇴사율 업계 최저

"'우주정복'의 꿈을 함께 실현할 인재를 찾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 부족해도 진지한 자세로 끊임없는 열정을 보인다면 '엔씨소프트 로켓'에 탑승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정대훈 엔씨소프트 HR지원실 실장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 먼저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우주정복'을 최고의 기업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시밭길이라 생각하는 곳에 먼저 도전하고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 고난을 극복할 열정과 패기를 지닌 인재만이 엔씨소프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인재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책은 단연 업계 최상 수준이다.

◆IT업계 최고 어린이집 자랑

실제로 판교테크노벨리에 위치한 엔씨소프트의 본사 사옥은 미항공우주국(NASA)을 연상시킬 만큼 웅장하다. 지하 5층, 지상 12층, 건물면적 8만8486㎡(약 2만7000평)의 엄청난 규모에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 스파와 같은 문화체육시설은 물론 메디컬 센터, 도서관, 카페, 식당, 결혼식장까지 들어있다. 특히 최대 2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IT업계 최고 수준이다. 교육을 책임지는 지도교사는 물론 간호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50여명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세심히 돌본다.

직원들의 교육과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NC 유니버시티'도 자랑거리다. 1개 층 전체를 사용하는 이곳에서는 사내 강사들이 다양한 자신의 노하우를 동료·후배들과 나눌 수 있다.

◆대졸 초임 업계 최상위권

복지제도도 다른 회사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매년 180만원 한도의 복지카드를 제공하고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사내 콘도미니엄 운영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직원은 물론 직원가족까지 메디컬 플랜(단체상해보험) 혜택을 줘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최소로 줄여주고 있다.





2만권이 넘는 도서를 보유한 엔씨소프트 사내 도서관에서 직원들이 독서를 즐기고 있다(위). 사내 메디컬 센터(오른쪽).

대졸초임도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개발부서는 3000만원대 후반, 비개발부서는 3000만원대 중반이다. 개인의 성과와 역량에 따른 PS(초과이익분배금), PI(생산성장려금)는 물론 개발부서의 경우 런칭 보너스도 따로 있다.

무엇보다 엔씨소프트의 최고 복지는 탄탄한 재무구조다. 1997년 창립이후 국내 게임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업계 최상위 실적을 기록중이다. 지난해 매출은 7500억원에 영업이익은 무려 2050억원에 달한다. 지난 2분기에도 매출은 전분기 대비 20% 늘어난 2138억원, 영업이익은 46% 증가한 649억원을 기록했다.

◆24일까지 신입 원서 접수

국내 게임업계에 미친 영향도 대단하다. 1997년 리니지부터 시작해 2003년 리니지2, 2008년 아이온, 2012년 블레이드&소울까지 출시한 모든 MMORPG가 한국게임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같은 성과 덕분에 신입사원 입사 후 1년 내 퇴사율은 5.3%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올 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중에는 현재까지 그만둔 직원이 한명도 없다.

엔씨소프트는 우주정복의 꿈을 펼칠 인재를 24일까지 홈페이지(kr.ncsoft.com)를 통해 모집 중이다. 채용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30~40명 내외다. 채용 절차는 입사지원서 접수, 서류 전형, 엔씨 테스트(인적성검사와 직무별 직무능력평가),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순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재를 원한다

엔씨·게임에 대한 이해 있어야



"엔씨소프트에 입사하기 위해 3번 이상 도전한 지원자가 상당히 많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열정을 발휘하는 지원자라면 충분히 우주정복의 꿈을 함께 할 수 있다."

정대훈(사진) 엔씨소프트 HR지원실 실장은 진지함, 헌신, 감동으로 이뤄진 엔씨 가치와 우주정복이라는 엔씨 정신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엔씨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해 보인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기업문화 덕분으로 보인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만족감은 물론 뛰어난 선배들에게 성공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자긍심도 대단하다.

▶채용절차 중 엔씨 테스트가 눈에 띄던데.

▶▶인적성검사와 직무능력평가를 합친 것이다. 인적성검사는 대기업에서 실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엔씨 가치와의 부합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직무능력평가는 모집분야별 기초지식을 검증하는 것이다. 엔씨소프트와 게임 산업에 대한 기존적인 지식과 직무 관련 기초 전공 지식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실패했던 것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진솔하게 얘기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지원 분야 관심 아닌 회사에 애정 드러내라

Q 자기소개서에 지원동기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구체적인 요령 좀 알려주세요.

A 지원동기는 회사에서 구직자에 대해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원동기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지원동기 부분에 어릴 적 이야기를 언급하며, 내가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쓰는 실수를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 지원동기에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고, 즐겨 탔으며…'라고 쓰는 구직자가 많죠.

지원동기는 내가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 왜 지원을 했는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비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뜻을 함께할 것인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그 회사의 비전과 결부시키고, 그 회사의 현재 사업 어느 부분에 감동을 받았다 등의 예를 들어가며 적으면 더 좋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타사 대비 어떤 우위에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강점과 매력을 중점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들은 홈페이지나 신문 기사,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업황 분석, 기업 분석 자료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내에 이 회사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의지와 관심을 표현하세요.

기업의 현재 상태를 너무 모른다고 느끼게 하는 자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20~30개의 기업에 동시 다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목표 기업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쓴 자소서는 티가 나기 마련이고 합격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스터디한 자료를 토대로 매력적인 자소서를 작성하길 권장합니다.

/취업단기(www.engdangi.com/job) 제공

정리=이국명기자

취업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은

구글코리아 6년 연속 1위로

구글코리아가 취업 준비생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21일 대학생·구직자 507명을 대상으로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구글코리아'가 27.6%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구글코리아는 같은 설문에서 2009년 1위에 오른 이래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가고 싶은 외국계 기업 2위는 '유한킴벌리'(14%)로 지난해 순위와 같았다. 3위 기업의 경우 남성은 'BMW코리아'(6.6%), 여성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7.9%)를 거론했다.

해당 외국계 기업 선호 이유로 구글코리아, 한국지멘스, 홈플러스는 '자유로운 조직문화'가 최대 장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한킴벌리, BMW코리아, 한국P&G는 '우수한 복리후생제도',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나이키스포츠는 '대외적 평판', 한국쓰리엠은 '높은 연봉'이 최대 선호 이유로 꼽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1915.28	(−14.78)
코스닥	557.54	(+1.53)
금리(국고채 3년)	2.24	(−0.02)
환율(원·달러)	1054.50	(−5.50)

뉴스&뉴스



커피에 빠진 한국 21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생두와 원두 등 커피(조제품 제외) 수입중량은 9만9372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늘었다. 이에따라 올해 커피 수입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LGD 대형 LCD 점유율 1위

●LG디스플레이가 TV·모니터·노트북PC 등에 사용되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시장에서 20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1일 시장조사업체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 3분기 9.1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의 전 세계 출하량은 1억8165만대로 2분기(1억8013만5000대)보다 0.8% 늘었다. 이가운데 LG디스플레이가 3930만3000대로 시장점유율 21.6%를 기록하며 1위를 했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3분기 출하량 3601만7000대, 점유율 19.8%로 3위를 기록했다. /양성운기자

3주 1000만원 '천국의 알바'

●3주 동안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천국의 알바'가 미국에 상륙한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다음달 말까지 천국의 알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천국의 알바에 선발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18일까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2주간 환경 보존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1주일간 뉴욕여행을 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2주간의 아르바이트비를 포함해 숙박, 식사, 왕복항공권, 여행경비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활동이 끝나면 공식 수료증도 받는다.

선발인원은 총 4명이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끼가 넘치는 대학생과 고3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재송신료 갈등' 정부 개입만이 해법

지상파-유료방송업계 눈치싸움 여전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료(CPS) 갈등'이 연일 이어지면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간 재송신료 관련 협상이 11월 중순 이후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가입자당 280원씩 지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 측은 제작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재송신료를 인상하거나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행사 시 추가 재송신료를 받는 문구 등을 명확히 명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는 '2014 브라질월드컵'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 대한 추가 재송신료를 놓고 갈등을 지속해 왔다.

특히 재송신료가 인상될 경우 유료방송업계는 이를 고객 요금 인상분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해외에선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 중 일부가 1.99~2.15 달러를 재송신료라는 항목으로 고객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미국 1위 케이블방송 사업자 컴캐스트 역시 최근 급속도로 가중되는 재송신료 부담으로 고객에게 이를 청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송신료 비중이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의 3% 이하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 수준이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업계는 지금도 재송신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 갈등 해법은 정부 개입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업자 간 갈등 속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입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뒷짐만 진 채 사업자 간 갈등을 방관해 왔지만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위원장은 국감 당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재송신료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양방 모두 조정 신청을 안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직접 직권조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지상파 재송신 관련 상설협의체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건은 이 같은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려야만 한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케이블업계가 지상파 측의 재송신료 산정에 반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고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지상파 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재송신료 협상을 앞두고 지상파와 사업자 간 연합협상·사전담합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역시 지상파 방송사가 연합협상과 사전담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지상파사업자가 뭉쳐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재송신료 분쟁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고른 의견을 반영해 국민 혜택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월드IT쇼 비즈니스 상담회 21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월드IT쇼(WIS) 2014' 해외파트너사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해외 통신업체 관계자들이 국내 정보통신기술 업계와 구매 상담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폰6' LGU+ 1호 개통자 등장

애플이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 iOS 8.1을 배포한 가운데, 일본에서 구입한 아이폰6로 국내 LG유플러스를 개통한 사용자가 등장했다.

21일 국내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 모임(아사모)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가 iOS 8.1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6에 적용해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제품 사용자에 따르면 iOS 8.1 업데이트 이후 네트워크 사업자 업데이트가 떴으며,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인터넷 접속 모두 원활하다. 특히 VoLTE가 적용되면 3G 음성통화보다 통화품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사용중인 마이크로유심을 아이폰6의 크기에 맞게 잘라 사용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예약 판매에 들어가며 31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21일 애플이 배포한 iOS8.1 버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었던 버그를 해결했다. /양성운기자 ysw@

서초구 평균 아파트값 '최고'…강남구 2위

2014년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2009년 강남구에서 5년 사이 순위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3주차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21만4692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평균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서초구가 10억3284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10억1095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2009년 10억8872만원에서 2014년 10억3284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5588만원 하락했으나 강남구는 11억4053만원에서 10억1095만원으로 서초구의 2배가 넘는 1억2958만원이 하락해 5년 사이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도 투자수요보다 실수요가 많아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 재건축 단지보다 매매가 하락이 적었다. 또 2014년 현재 평균 매매가 11억4987만원의 고가 단지인 반포리체(1119가구)가 2010년 10월 입주하면서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수요가 많은 곳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하락이 이어졌다. 또 한 관리비 부담이 높은 고가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며 아파트 평균 매매가 하락을 이끌었다.

2009년 아파트 평균 매매가 5위를 기록했던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이 투자수요가 크게 줄며 매매가가 하락해 2014년 현재 7위로 떨어졌다. 고덕주공, 둔촌주공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집중된 강동구 역시 8위에서 1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평균 매매가 최저인 곳은 2009년 금천구(3억674만원)에서 2014년 현재 도봉구(2억9260만 원)로 변경됐다.

한편 강남구는 서초구보다 개포지구, 압구정지구 등 대단위로 재건축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속도도 빨라 향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평균 매매가 최고 자리를 재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탁기자 kimdt@


UNIVERSIADE
GWANGJU 2015
FISU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Light Up Tomorrow
창조의 빛 미래의 빛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Dates : July 3rd ~ 14th, 2015(12days)
Venues : Gwangju World Cup Stadium and other stadiums
기간 : 2015. 7. 3 ~ 14(12일간)
장소 : 광주 및 인근 시·군 경기장
Suzy (Promotional Ambassador of 2015 Gwangju Universiad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 수지
Global Premium Partner
SK C&C
SK telecom
KIA

KB지주 차기회장 오늘 선출…최종 승자는?

윤종규·하영구 2파전 속 심층면접 최대 변수

KB금융지주 신임 회장 선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 간의 경쟁도 한층 뜨겁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5차 회의를 열고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선임한다.

4명의 최종 후보군은 내부 출신 3인과 외부 출신 1인 구도로 짜여지면서 경합이 치열하다. 업계에서는 "이들 모두 자타공인 금융전문가로, 후보 자격에 손색이 없다"고 평가한다.

금융계 안팎의 여론을 종합해보면 윤종규 전 부사장과 하영구 행장의 '2파전'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90분의 심층면접이 막판 최대 변수로 작용, 김기홍 전 수석부행장과 지동현 전 부사장의 뒤집기도 만만치 않아 긴장의 끈을 놓을수 없다.

4인의 후보들은 각자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적임자임을 역설했다.

◆하영구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4인의 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외부 인사다. 국민은행 노조는 씨티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 저조한 실적, 외압설 등까지 거론하며 하 행장을 '의혹 투성이의 외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하 행장은 이런 비판에 거침없이 대응했다. 그는 "KB금융 회장이 꼭 내부 출신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이 후보에 포함됐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김 부행장의 사퇴 이후 어떤 근거로 내·외부를 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윤 전 부사장, 김 전 부행장, 지 전 부사장이 각각 회계법인, 금융당국, 민간 연구소 출신으로 '순수 내부 출신'이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하 행장은 은행장으로서만 14년간 재직하면서 쌓은 인맥과 경험, 글로벌 경영 감각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다.

◆김기홍 "금감원, 소중한 경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인 김기홍 전 부행장은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가 아니냐는 지적에 정면 대응했다.

김 전 부행장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는 민간 연구소 등에서도 일했으니 '금피아', '연피아' 모두 해당된다"며 "전문가로서 영입돼 금감원에서 일했으며, 금감원에서의 업무 경험이 회장직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석부행장으로서 국민은행을 경영했던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KB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조직 안정을 통한 장기적 발전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규 "내 학력이 되레 장점"



4명의 회장 후보 중 '학벌' 면에서 가장 약한 윤종규 전 부사장은 "자신의 학력이야말로 인간적인 매력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윤 전 부사장은 광주상고를 나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반면 KB금융 회추위를 구성하는 9명의 사외이사는 대부분 경기고, 경복고, 용산고 등의 명문고를 나왔다. 사외이사 9명 중 8명이 서울대 상대 출신이다.

윤 전 부사장은 "상고 출신으로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학업을 마쳤다"며 "학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직원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매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부 출신이 KB 회장이 된다면 직원들의 자긍심 회복과 함께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업력과 고객 신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동현 "금융 이론 가장 큰 무기"



지동현 전 부사장은 연구원 출신으로서 은행권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조흥은행에서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금융, 기관금융, 자금관리 등 중요 업무를 모두 맡았다"며 "KB금융지주에서는 전략기획, 국민카드에서는 기획과 경영관리를 맡아 지주사 회장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다.

지 전 부사장은 "10년 넘게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이론 면에서는 어느 후보 보다 낫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서 "21세기 금융은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금융 과학'이 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임자는 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정무위, 세월호 부실대출 집중 추궁

세월호와 천해지, 동부그룹, STX 등 기업 부실 대출과 구조조정 문제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집중 타깃이 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대출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지난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 100억원 중 80억원을 실행하면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대출과 해줬다"며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구입과 관련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기 전 대출을 해주는 등 특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답변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하이투자, 연 8.6% ELS 1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22일부터 24일 오후 1시까지 ELS 1종을 총 1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에서 'HI ELS 646호'는 HSCEI 지수, EURO 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 12개월), 85%(18, 24개월), 80%(30,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5.8%(연 8.6%)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만기 시에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가입은 하이투자증권 지점 또는 HTS, 금융상품몰(www.hi-ib.com)에서 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im1@





'KB스타뱅킹미니' 서비스 시행 KB국민은행이 고객 편의성을 반영한 새로운 스마트금융 서비스 'KB스타뱅킹미니'를 21일 출시했다. 조회, 이체, 스마트폰 전용상품 등 고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중심으로 구성된 'KB스타뱅킹미니'는 단순한 화면 구성을 통해 홈화면에서 모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KB국민은행 제공

삼성생명·화재, 보험사기 적발액 가장 많아

자동차분야, 25만6210명으로 전체의 75%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약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기 중에서는 자동차관련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 삼성생명은 총 832억7000만원의 보험사기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한화생명(725억7000만원) 교보생명(714억2700만원) 미래에셋생명(158억3100만원) 흥국생명(94억7200만원) ING생명(59억75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41억2500만원) 동양생명(39억7200만원) 신한생명(39억2800만원) NH농협생명(15억1700만원) 순이었다. 이들 10개 생보사의 총 액수는 2720억8700만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은 2위를 기록했지만 2012년 181억9600만원으로 큰폭으로 상승한 후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금액이 가장 많은 생보사가 됐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4878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해상(3652억3900만원) 동부화재(3406억0600만원) LIG손보(2161억7400만원) 한화손보(883억4000만원) 메리츠화재(761억9200만원) 롯데손보(525억1300만원) 흥국화재(449억6300만원) NH농협손보(96억1700만원) MG손보(49억2900만원) 순이었다. 10대 손보사의 총 액수는 1조6864억5100만원이다.

자동차사기보험액수는 이 기간 1조1751억8700만원으로 손보사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적발인원도 25만6210명에 달해 전체 보험사고 적발인원의 74.8%에 달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3분기 증시 기업·개인 '호전'

회사채 발행 한달 새 4조 늘어… 계좌수 2분기 연속 증가

3분기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지난달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올 들어 월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동계좌수도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늘어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11조1893억원으로 전달 대비 3조8977억원(53.5%) 증가했다.

주식을 통한 조달이 9월 5992억원으로 전달보다 5.2% 늘었으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조달이 10조5901억원으로 무려 57.5% 급증했다.

특히 이달 초(6일) 게임업체인 데브시스터즈가 올 들어 처음으로 1000억원이 넘는 1431억원의 IPO(기업공개)를 한 영향이 컸다.

상반기 소강상태를 보이던 IPO 시장은 3분기 증시 여건이 호전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올 1분기 591억원(3건) 규모였던 것이 2분기 461억원(4건), 3분기 3321억원(15건)으로 불어났다.

회사채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망세가 사라지면서 일반회사채 발행(3조9009억원·26건)이 월평균 수준(3조5324억원·33건)을 회복했다.

다만 BBB이하 등급 회사채(주식관련 사채 제외)는 여전히 발행되지 않아 회사채의 등급 간 양극화가 계속됐다.

할부금융사가 차환발행 및 운영자금 용도로 회사채를 활발하게 발행하면서 금융채는 9월 2조755억원(70건) 발행으로 올해 평균 1조3849억원(52건)을 훌쩍 웃돌았다. 올 들어 월별 기준 최대치다.

은행채도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금과 유가증권 운영 규모 확대를 위해 회사채를 활발하게 발행한 여파로 올 들어 최대치를 찍었다.

반면 9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실적은 73조373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818억원(1.9%) 감소했다.

CP가 31조3241억원으로 6.9% 늘었으나 전단채가 41조7132억원으로 7.6% 줄어들면서 전체 발행실적을 감소세로 이끌었다.

증권사의 전단채 발행액은 7월 27조3655억원에서 8월 27조4151억원, 9월 23조427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증시 여건 개선에 증시 활동계좌 수는 올해 2~3분기 연속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활동계좌 수는 223만1321개에서 2분기 232만3776개(4.14%) 늘었으며 3분기 240만4006개로 3.4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이 1분기 217만5941개에서 2분기 226만7233개(4.2%), 3분기234만6295개(3.5%)로 늘었다.

기관은 3만여개 수준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올 들어 2분기 연속 증가했고 외국인도 17만여개 흐름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만 9월 활동계좌 수는 159만6531개로 8월 164만1527개로 줄어들었다. 올해 6월 150만9728개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7월 170만1332개(12.69%)로 늘었으나 8~9월 들어 다시 전달 대비 각각 3.52%, 2.74%씩 감소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고객패널 제안'개선방안 간담회 은행이 고객에게 답을 구하고 나섰다.21일 NH농협은행은 고객패널 대표 6명과 함께 카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대면 채널 채선 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신응환 nh농협카드 사장(가운데)이 고객패널 들과 카드부문 비대면 채널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우리은행, ISMS 인증 획득

우리은행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MS인증'이란 고객 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제도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하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업의 자체 보안정책과 인력, 장비, 시설 등 모두 104개 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이를 통과한 정보보호 우수 기업에게 부여한다.

앞서 지난 1년간 제도 개선과 시설을 보완한 우리은행은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ISMS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우리 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월 경영전략회의에서 이순우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2500여명이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4대 기본원칙을 제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다짐과 서약식을 가질 만큼 고객정보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호 고객정보보호센터장은 "이번 ISMS인증 획득은 우리은행이 고객정보보호에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정보보안 인식 수준 향상은 물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 고객정보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동부증권, ELB·ELS·DLB 5종 판매 동부증권은 22일부터 24일까지 최고 연 3.3%의 수익을 추구하는 파생결합사채(ELB) 1종과 최고 연 7.32%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23일부터 24일까지는 최고 연 9.1%의 수익을 추구하는 기타파생결합사채(DLB) 1종을 판매한다. /동부증권 제공

VIP 마케팅 차별화로 '승부수'

은행권, 자산관리·교육 프로그램 제공

저금리에 가로막힌 은행들이 'VIP 고객' 잡기에 나섰다.

저금리시대, 지갑을 여는 건 결국 부자들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존에 제공되던 자산관리 서비스 외에도 VIP 자녀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비서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KB국민은행은 기존 VIP고객을 위한 전용 공간인 VIP라운지를 PB센터 수준의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한 프리미엄 VIP라운지 '스타테이블 라운지'를 전국 21개 영업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분야별 전문가의 전담 자문서비스(세무, 부동산, 법률,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통한 최적의 금융 솔루션과 차별화된 고객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추가했다.

신한은행의 '신한PB 2세 스쿨'은 부자 고객 자녀들을 겨냥한 서비스다. 일 년에 한 번씩 PB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재테크 교육과 교양 강좌 등을 열고 있다. 여기서 미혼 남녀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기도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VIP 고객 자녀들에게 여름방학 기간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 중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씨티은행에 5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패션 브랜드인 토리버치 매장에서 김성일 스타일리스트를 초대해 스타일링 클래스를 열었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해피네이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IP 고객이나 고객의 직계비속이 신생아를 출생했을 때 국내 전문 작명가에게 의뢰해 이름을 지어주는 서비스다. /김민지기자 minji@

서울보증 새 사장 3파전

최근 금융사의 '관피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SGI서울보증 차기 사장 후보에 이수룡 전 서울보증보험 부사장,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과 김옥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 등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는 20일 차기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외부 3명, 내부 출신 3명 등 6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6명에는 공무원(관피아)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추위는 27일 면접을 거쳐 최종 1인은 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내부 인사로는 이수룡 전 부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사장은 대구공고 영남대 법학과 출신으로 지난 1979년 서울보증보험의 전신인 대한보증보험에 입사했다. 이후 1987년 서대구지점장, 1993년 기획조정실 차장을 거쳐 1995년 비전추진본부 경영전략팀장을 지냈다. 2000년에는 감사실장, 2007년에는 영업·보구상총괄 부사장을 지내는 등 회사의 주요직을 두루 거쳤다.

외부 인사로는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과 김옥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태 전 사장은 우리은행 부행장을 거쳐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을 역임하는 등 은행과 보험사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우리은행 도교지점, 베이징법인 등 많은 해외 근무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옥찬 전 부행장은 최근 KB금융 회장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자진 사퇴하면서 서울보증 사장에 선임될 것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텔레그램 카톡유저의 동병상련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2012년 대선 직전 러시아 국민은 모스크바에서 연일 시위를 했다. 이유는 한 가지.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였다.

푸틴은 법을 바꿔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사실상 없애버렸다. 그리고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서 '차르'(옛 러시아 황제)의 부활을 예고한 것이다.

푸틴의 의도를 본능적으로 파악한 러시아 국민은 크렘린궁 앞 광장을 점령하고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행진을 했다. 한때 구 소련 붕괴 후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는 최대인 12만명이 모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푸틴은 경악했다. 그와 동시에 '저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뜻을 같이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했다.

답은 간단했다. 1억명의 가입자가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판 페이스북 '브콘닥테(VK)'였다. 이에 푸틴은 브콘닥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던 파벨·니콜라이 두로프 형제에게 도움을 청한다.

반정부 시위대의 명단과 메시지, 개별 페이지 삭제 등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 정부는 급기야 이들 형제에게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주동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이를 거절한 두로프 형제는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로 망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SNS 검열·사찰'이라는 아픔을 너무나 잘 알았던 두로프 형제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만들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가 나눈 대화를 암호화 해 남이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했을 뿐 아니라 메시지를 저장하지 않아 압수수색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서버를 유럽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독일에 둬 검열 논란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동병상련이라고 했던가. 국내 모바일메신저 대표 브랜드인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이 서서히 텔레그램으로 둥지를 옮기고 있다.

검찰이 카카오톡과 같은 SNS에 대한 사이버 검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이버 망명' 붐이 일고 있는 셈이다.

평범한 사람이 검찰의 검열을 받을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검찰을 포함한 제3자가 자신과 친구의 대화를 엿듣는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카톡 사찰 논란 10여일 만에 국내 텔레그램 가입자 수는 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로프 형제는 한국 유저가 급증하자 당황했지만 최근의 한국 뉴스를 접한 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한국 국민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안정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자는 둘 중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사생활 유출에 대한 모든 잠재적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암호화를 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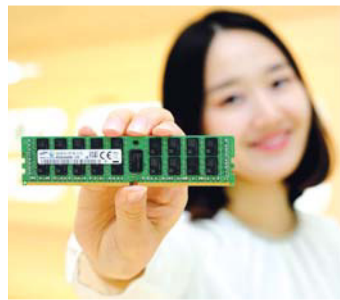
삼성·SK하이닉스, 서버용 D램 공략

DDR4 시대 개막…반도체 시장 주도권 강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DDR3에서 DDR4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D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할 제품을 내놨다.

DDR(double data rate)이란 D램 반도체의 동작속도 규격으로, DDR1에서 DDR4로 진화하면서 매 단계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2배씩 빨라졌다. 반대로 전력소모는 DDR4가 DDR3보다 35% 줄었다.

시장조사기관 IHS테크놀로지에 따르면 DDR4 D램이 올해 전체 D램 시장에서 2%(출하량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2015년에는 11%, 2016년 30%, 2017년 44%, 2018년 49%로 점차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도 서버용 D램 시장은 모바일 환경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7%에 이르는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양사는 서버 시장에서 DDR4로의 전환을 주도할 차세대 D램 제품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20나노 8기가 DDR4 서버 D램. /삼성전자 제공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20나노 8기가비트(Gb) DDR4 서버용 D램 양산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최초로 20나노 PC용 D램 양산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모바일 D램에 이어 이번 서버용 D램에까지 20나노 공정을 적용하면서 20나노 D램 전체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 D램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서 전력 사용은 낮춘 고성능·고용량·저전력의 제품이다.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한 DDR4 서버용 모듈 제품은 기존 DDR3 기반의 모듈보다 약 30% 빠른 2400Mbps의 고성능을 구현하는 반면 동작 전압은 1.2볼트로 소비 전력이 더 낮다. 또 기존 4Gb 제품 기반으로는 최대 64기가바이트(GB) 용량의 모듈만 가능하지만 이번 8Gb D램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TSV 기술을 접목해 최대 128GB의 모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DDR4 D램을 기반으로 한 16GB 서버용 NVDIMM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D램에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플래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듈로, 갑자기 전원이 끊겨도 D램의 데이터를 낸드플래시로 전송해 안전하게 저장·복구할 수 있다.

20나노급 4Gb DDR4 D램을 기반으로 해 기존 DDR4 D램 모듈과 동일한 성능을 구현한다. 동작전압 1.2볼트와 2133Mbps의 속도를 구현했으며 초당 17G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16GB는 NVDIMM 기준 세계 최대 용량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인사나누는 최양희 장관과 황창규 회장 21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에 위치한 KT부산국제센터에서 열린 국제 해저통신망 통합관제센터인 'APG NOC' 개소식에서 최양희(오른쪽)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황창규 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9개국을 연결하는 1만1000㎞ 길이의 국제 해저광케이블 운용을 총괄한다. /연합뉴스

동작구 본동 '휴앤하임' 조합원 모집

서울 동작구 본동 40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한강 본동 휴앤하임'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전체 765가구, 전용면적 59~84㎡로 이뤄졌다. 중대형 아파트 일색이던 한강변에서는 보기 드물게 100% 중소형으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 5번 출구와 단지 입구가 에스컬레이터로 직접 연결되며, 1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상도역도 가깝다. 노들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등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영본초, 본동초, 노량진초, 동양중, 장승중, 영등포고, 성남고 등의 학교와 노량진 학원가와 인접했다.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도 인근에 있다.

주변으로 수산시장, 아이파크몰, 중앙대학교 병원, 보라매 서울병원, 동작보건소,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동작세무서, 동작구민회관 등의 편의시설과 관공서를 갖췄다.



한강 본동 휴앤하임은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수하고, 한강공원이 가까운 입지를 감안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돋보이는 특화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한다. 문의: 1577-8903

/박선옥기자 pso9820@

바닷속 선체 바닥 '청소로봇' 나왔다

삼성중공업 자체 개발…시간·원가 절감 효과

삼성중공업이 물에 잠기는 선박의 선체 아랫부분을 청소할 수 있는 수중 선체청소로봇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로봇은 선박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직전 실시하던 리도킹 작업을 대체할 수 있어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리도킹은 선박의 수리와 선체 청소 등을 위해 선박을 도크에 다시 거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LNG선은 도크에서 선체를 진수한 뒤 계류된 상태에서 화물창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최종 인도까지는 통상 7~8개월이 소요된다. 이 때 바닷물과 접하는 LNG선 선체에 따개비와 같은 유기물이 달라 붙는데 이는 선박 속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LNG선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리도킹 작업을 통해 선체 하부에 붙은 유기물을 제거해 왔다. LNG선 1척의 리도킹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주일 안팎이다.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수중 선체청소로봇은 수중 센서를 통해 수중에서 일정한 깊이와 방향을 유지하고, 선체 외판 부착물과 같은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개발돼 선박이 정박한 상태에서 유기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로봇을 이용하면 리도킹을 위한 시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선박 받침대 설치, 선박 예인 등의 공정이 없어져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성능 테스트를 마쳤고, 11월부터 인도를 앞 둔 LNG선의 선체 청소작업에 직접 투입한다.

/김민준기자 mjkim@

중소형만? 중대형도 잘팔린다

애물단지 중대형 아파트 혜택 더해져 발길 늘어

그간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회복과 함께 공급 감소, 계약자 혜택 등이 더해지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찾는 발길이 느는 추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85㎡ 초과 미분양 아파트는 1만6955가구다. 중대형 미분양 적체가 가장 심했던 2008년 말 8만8381가구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이다. 올 들어서도 1월 2만3384가구에서 4월 1만 가구대로 떨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공급 감소의 영향이 크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의 공급 비율은 2007년 36.5에서 지난해 11.2%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더 낮은 10.5%로, 앞으로 한자리 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올 들어 8월까지 국토부가 집계한 전국 중대형 주택인·허가실적 비율은 19.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보다 2.1%포인트 빠졌다. 인·허가를 받고 최소 3개월에서 2년 이내 주택 공급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4년 후 중대형 입주량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비용 부담이 낮은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넓은 집을 원하는 수요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최근 위례, 광명역세권 등에서 중대형으로 이뤄진 아파트가 잘 나가는 이유도 이런 수요자를 타깃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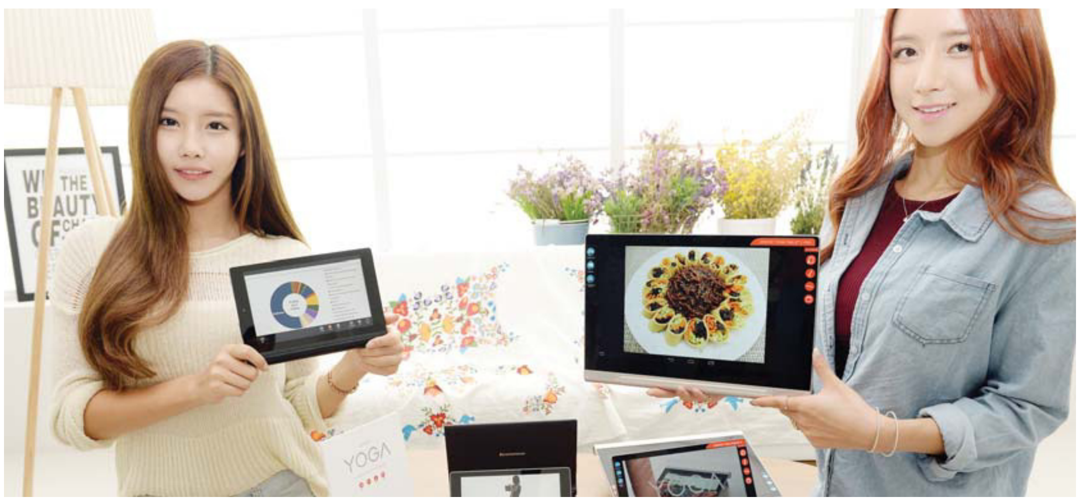
할인분양, 발코니 확장 무상지원 등 다양한 계약자 혜택을 통한 적극적인 판촉 활동도 중대형 미분양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는 최대 21% 할인분양을 비롯해 전 가구 발코니 무료 확장과 25개월간 잔금 유예를 해주고 있다. 또 강동구 고덕동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는 발코니 무료 확장,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1구역)'은 중대형에 한해 2500만~4000만원 할인을 실시한다.

경기권에서는 남양주시 도농동 '도농역 센트레빌'이 전용면적 114㎡에 한해 잔금지원비용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을 깎아주고 있다. 부천시 약대동 '두산 위브트레지움' 역시 121㎡ 대형면적에 최초 분양가 대비 최대 20% 할인과 발코니 무료 확장을 지원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건설사들이 지금의 여세를 몰아 미분양을 모두 소진하겠다는 계산에 각종 계약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살 이유는 없지만 집을 넓혀갈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레노버 '요가 태블릿2' 21일 서울 성수동 로이아파트먼트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레노버 '요가 태블릿(YOGA TABLET) 2'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출시된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RM디자인이 예상한 뉴 A4의 디자인. /출처=월드카팬즈닷컴·RM디자인

아우디 뉴 A4, 새로운 스타일로

차세대 콘셉트 담아 내년에 등장

내년도에 등장할 아우디 뉴 A4(코드명 B9)가 새로운 패밀리룩으로 단장해 선보인다.

월드카팬즈닷컴이 RM 디자인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우디는 다음달 열리는 LA 오토쇼에서 차세대 스타일의 콘셉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뉴 A4가 등장하진 않지만, 차세대 콘셉트를 통해 신형 A4의 스타일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세대로 진화한 A4는 올해 1월 국내에서도 공개된 A3를 키운 모습이다. 여기에 스포티함과 날카로움을 더해 완성했다. RM 디자인은 "예상도이긴 하지만 실제 모습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 A4는 아우디의 MLB 에보(Evo) 플랫폼을 사용한다. MLB 에보 플랫폼은 세로배치 엔진 공용 플랫폼으로 아우디 A4부터 A8까지 적용된다. 폭스바겐이 골프에서 선보인 MQB(가로배치 공용 모듈 매트릭스) 플랫폼처럼 다양한 차에 쓰이기 위해 개발된 메커니즘이다. 새 플랫폼은 기존 모델보다 대략 50kg 정도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추가될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버전은 211마력의 2.0 TFSI 가솔린 터보 엔진에 95마력 전기 모터를 조합한다. 95마력은 르노삼성의 전기차인 SM3 Z.E.가 내는 출력과 같다. 기존 A4 엔진에 SM3 Z.E.의 파워트레인을 결합한 셈이어서 막강한 성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등장할 1.4 TFSI 엔진은 실린더 비활성화(기통 휴지) 기능을 갖췄다. 저속이나 중속에서 정속 주행할 경우 4기통 중 2기통을 정지시키는 기술로, 이를 통해 100km 주행에 0.5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인테리어도 확 달라졌다. A8을 연상케 하는 센터콘솔과 커진 터치스크린, 신형 터치 패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스크린 내장 룸미러 등으로 기존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계기판은 옵션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신형 A4는 최종 디자인 수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데뷔는 내년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소재·부품 산업 1000억 달러 시대

22~24일 킨텍스서 '소재부품 산업주간'



소재·부품산업의 성과와 국내 기업들의 역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4 소재·부품 산업주간'이 22~2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기관·대학·연구소 등이 참가해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며 최신 정보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다.

특히 올 연말이면 사상 최초로 '소재·부품 무역흑자의 1000억 달러 시대'가 열릴 전망이어서 의미도 깊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섬유화학 전문기업인 '벤텍스(www.ventexkorea.com)'의 경우 세계 최초로 1초 만에 마르는 섬유 '드라이존'을 개발한 업체다. 냉매로 변환한 후 온도를 3도 내려주는 '아이스필', 땀을 열 에너지로 변환해 온도를 10도 올려주는 '메가히트알엑스', 피부질환을 완화해주는 '스킨닥터' 등의 섬유도 개발했다.

'서한안타민(www.antamine.com)'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불연벽패널로 중기청 성능인증,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불연, 준불연) 인증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 9월까지 소재·부품 산업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2033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전문기술과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수출에 나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활약상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대기업이 수산물 판로 돕는다

국내 대기업이 수산물 수출과 소비 확대를 돕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 투자활성화와 수산물 수출·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해양수산 부문 투자유망사업 발굴, 정보제공·민간투자 확대 등을 지원하고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해운, 물류, 항만건설사업의 해외 진출 시 대기업과 해양수산기업의 동반진출·정보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풍부한 해외시장 개척 경험과 상품개발 역량이 수산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정보를 조사하고 수산식품의 수출전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해 물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수산물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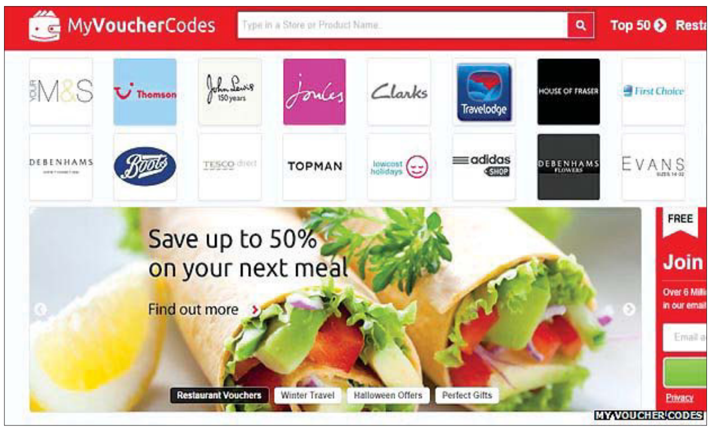
/박성훈기자 zen@

물건 없이 돈 버는 '할인 쿠폰왕'

영국 최고 인기 웹사이트 '마이바우처코드'…짭짤한 수수료 장사로 대박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속옷, 런치 박스 등 다양한 할인 쿠폰을 모아 놓은 웹사이트가 있다. 영국 최초의 할인판매 웹사이트 '마이바우처코드'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이 업체를 집중 조명하며 마크 피어슨(작은 사진) 마이바우처코드 대표의 성공 비결을 공개했다.

피어슨 대표는 중학교 시절부터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정부 보호 시설에서 지냈다. 아버지의 폭력 때문이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을 자처한 그는 열여덟 살 때 요리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꽃장식 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을 챙겼다.

피어슨 대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다른 지식 없이 온라인 쿠폰 사업에 뛰어 들었다. 꽃장식 업체가 입소문을 타면서 온라인 회원 수가 크게 늘자 대형 업체가 먼저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배너 광고 등을 꽃가게 웹사이트에 내보내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수수료 장사'로 짭짤한 수익을 맛본 피어슨 대표는 온라인 사업에 눈을 떴다. 물건을 직접 사서 팔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간파한 것이다. 그는 2007년 영국 내 대형 유통 업체와 유명 식당의 쿠폰을 모아 마이바우처코드를 열었다. '온라인 백화점'의 등장에 네티즌은 벌떼처럼 몰려 들었다. 첫 해 매출 30만(약 5억원) 파운드를 시작으로 이듬해 100만 파운드를 달성했고, 창업한지 4년 만에 1000만 파운드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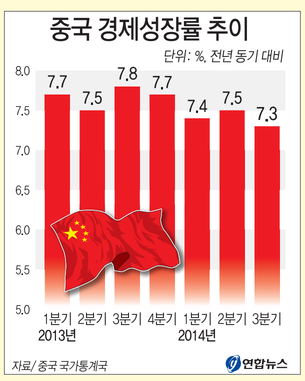
마이바우처코드는 영국에서 최고 인기 웹사이트로 꼽힌다. 피어슨 대표의 개인 자산은 6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크고 작은 업체와 제휴 마케팅을 한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성공 비결을 귀띔했다.

현재 영국 최대 유통업체 테스코와 피자 익스프레스를 비롯해 6만여개 업체가 마이바우처코드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600만 명의 영국인이 e-메일로 쿠폰 정보를 받아 본다. 고객이 온라인 상에서 쿠폰을 내려받을 때마다 마이바우처코드는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마이바우처코드는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피어슨 대표가 노트북 한 대 들고 나와 꾸린 회사의 직원 수는 110명으로 늘었다. 그는 올해 초 회사를 모바일 뱅킹 기술 개발 업체인 '모니타이스'에 매각했지만 여전히 회사 운영에 관여한다. 피어슨 대표는 마이바우처코드가 모바일 쿠폰으로 영역을 확장, 세계 최고의 할인쿠폰 업체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7.3%

예상보다 약간 높지만 2분기보다 낮아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7.3%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7.2%)를 소폭 상회했지만 전 분기 성장률(7.5%)보다는 낮다.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4년 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3분기 중국 전체의 GDP는 41조9908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다고 전했다.

3분기 중국의 1차산업은 4.2% 성장했고 2차산업은 7.4%, 3차산업은 7.9% 성장했다. 2·3차 산업이 성장률을 견인한 셈이다.

같은 날 발표된 1~3분기 중국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해 시장 전망치(8.4%)를 웃돌았다. 9월 중국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증가해 시장 전망치(7.5%)를 넘어섰다.

1~3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35조7787억 위안으로 16.1% 증가했다.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6조8751억 위안으로 12.5% 뛰었다. 소매판매는 18조 9151억 위안으로 12% 늘어났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10조4224억 위안으로 5.1%, 수입액은 8조 9999억 위안으로 1.3% 증가했다.

전체 무역규모는 19조4223억 위안으로 3.3% 증가했고 무역흑자는 1조4226억 위안을 기록했다.

1~3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이다. 다만 식품 가격 상승률은 3.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선미기자



21일 중국 베이징 여성들이 명품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스모그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뚝' 20일 스모그가 짙게 낀 중국 베이징의 국립박물관 앞에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서 있다. 중국관광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14년 중국 입국관광발전 연차보고서'에서 스모그를 외국인 관광객 감소의 주범으로 꼽았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홍콩·마카오 포함)은 연인원 1억 2907만 명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고맙다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애플 어닝 서프라이즈

안드로이드 진영에 고전하던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특히 다음 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도 예상되고 있다. 최근 출시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P·AFP·CNN 등에 따르면 애플은 2014 회계연도 4분기 매출 421억2300만 달러(약 44조3892억원), 순이익 85억 달러(약 8조9000억원)를 기록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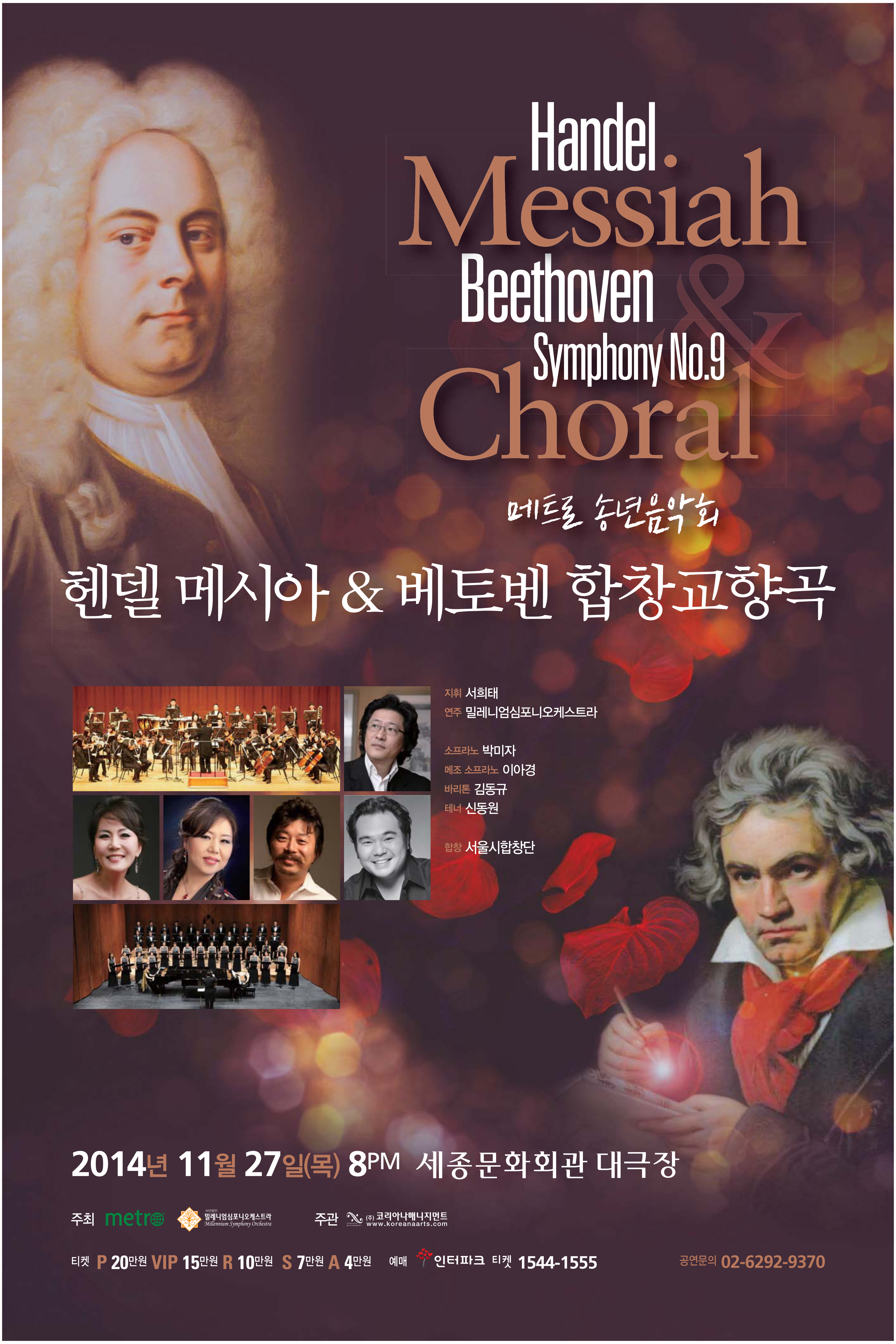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4%, 순이익은 12.7%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희석 주당 순이익은 1.4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했다. 총마진율 역시 38%로 전년 동기 대비 1% 포인트 늘었다.

이같은 호실적은 신작효과로 인해 아이폰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분기의 아이폰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3927만2000대다. 이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보다 100만 대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아직 포함하지 않아 다음 분기 실적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반면 아이패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한 1231만6000대에 그쳤다. 이는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것이다.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주에 중국에서 판매가 개시된 아이폰 6와 6 플러스의 판매량이 이미 지난해 모델을 넘어섰다"며 "IBM과 협력해 기업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탑재된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판매키로 해 아이패드 판매 감소세도 뒤집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Handel
Messiah
&
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지휘 서희태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바리톤 김동규
테너 신동원
합창 서울시합창단
2014년 11월 27일(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metro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주관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새로 나온 책

예술

미러리스 사진 잘 찍는 법

ZAKO/한빛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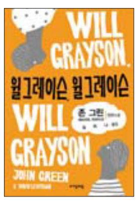


사진가 그룹 ZAKO의 멤버들이 미러리스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초보자들을 위해 뭉쳤다. 카메라를 처음 손에 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촬영 노하우와 친절한 카메라 기능 설명은 물론 찍은 사진을 재미있게 활용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소설

윌 그레이슨, 윌 그레이슨

존 그린·데이비드 리바이선/자음과모음



영화 '안녕, 헤이즐'로 이름이 알려진 존 그린과 데이비드 리바이선이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윌 그레이슨을 번갈아가며 집필했다. 별난 만큼 익살스럽고 사랑과 욕망, 우정과 분노가 절묘하게 섞여 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기적인 사랑의 노래가 이 가을 당신을 기다린다.

에세이

잘 다녀와요, 오늘도 행복하기를

김인숙/지식너머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가난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온정을 베풀고 있는 김인숙 수녀가 소박한 일상을 책에 담아 삶의 희망과 소중함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단순한 일상을 맑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놓치지 않아야 할 소중한 인연과 기억의 소소함이 감사의 마음을 들게 한다.

눈먼 자들의 국가

김애란 외/문학동네



세월호 참사를 잊지말자는 뜻에서 12명의 필자가 마음을 모았다. 진실과 슬픔의 무게가 짓누르지만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준다. 정당한 슬픔은 합당한 이유 없이 눈물을 그치는 법이 없는 것이다.

정치·사회

미치광이 예술가의 부활절 살인

해럴드 셰터/처음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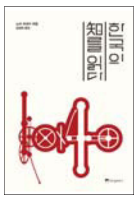


아름다운 모델이 나체로 살해된다. 공교롭게도 살인 현장은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빅맨 플레이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선정성만을 노리는 언론은 정신없이 모여들어 그들만의 허구를 만들어낸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문

한국의 지(知)를 읽다

노마 히데키/위즈덤하우스



오랜 세월 한글을 사랑하고 공부해 온 한 정열적인 일본인 학자 한 사람이 '한국의 지'에 주목했다. 그의 이름은 노마 히데키. 일본인 학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맥락을 배제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한글의 구조를 통찰하며 '소리가 글자가 되는' 한글의 혁명성을 철저한 이론적 근거와 탁월한 문체로 흥미진진하게 그려 낸다.

경제·경영

웨어러블 혁명

이종근·정재훈/한스미디어



LG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웨어러블 시장이 구매자의 기호에 따라 매우 세분화될 것이며, 패션제품으로서의 사용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웨어러블의 산업화와 대중화를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다.

자기계발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가는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잘하고 싶어 하는지가 문제다

폴 아덴/크리스마스북스



이 책은 일상적인 질문에도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내놓는 창의적 천재로 기억되고 있는 '폴 아덴'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다. 2003년 첫 출간 이후 10개국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적으로 약 60만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이 수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센스의 차이

이시와타 고이치/청림출판



열정과 스펙, 아이디어만큼 중요한 센스를 키우기 위한 안내서다. 책은 일상 속 작은 노력만으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센스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함을 만드는 사소한 차이도 배울 수 있다.

/김수정기자

촘스키, '서구 문명의 치부' 비판

안드레 블첵과 대담 형식 식민주의 유산 신랄하게 지적



촘스키, 은밀한 그러나 잔혹한

노엄 촘스키/베가북스

이 책은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겸 영화감독인 안드레 블첵과의 대담 형식으로 꾸며졌다.

서구의 무차별적인 탐욕과 정복을 참된 지식인의 양심으로 고발해온 석학 촘스키의 정치사상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안내서이자 인류 근대사에서 서양이 휘둘러왔던 역할에 불편함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깨우침을 선사하는 필독서다.

촘스키로 하여금 십대의 어린 나이에 정치적 사고를 만들게 했던 뉴욕시의 신문가판대에서 시작해 그의 회고는 점차 시야를 넓혀간다. 이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통제, 프로파간다와 미디어, 아랍의 봄, 미국 세력의 약화, 현재의 세계정치 등을 아우른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니카라과·쿠바·중국·칠레·터키·인도네시아·인도·아프리카 국가들을 하나씩 짚어나가며 서구 식민주의의 고통스러운 유산을 강력하고도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책은 두 사람의 일생을 열정적인 인문·사회운동으로 이끌어간 개인적 경험과 함께 역사적인 담론을 펼쳐나간다.

수백 년에 걸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지속적으로 수백만 명의 인간들을 몰살시켜 온 서구 문명의 어두운 역사가 드러난다.

인류의 미래가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개개인의 이해와 반응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지식을 도둑 맞지 않기 위해' 결코 빠뜨려서는 안될 읽을거리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선물로 찾아온 소중한 아들



대한민국 최고의 춤꾼이었던 강원래는 교통사고 후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세상 끝에서 분노와 좌절을 맛본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 김송과 가족을 포함한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용기를 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와 그의 아내에게는 태명이었던 '선물'의 앞글자이자 '베푼다'의 의미를 가진 '선(宣)'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소중한 가족이 생겼다. 시련과 아픔은 그렇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 법이다. -'우리 사랑 선이'(강원래·김송/Lcompany) 중- /황재용기자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까지 버텨라!

화제의 책

'버티는 삶'을 위한 '글 쓰는 허지웅'의 이야기

버티는 삶에 관하여 허지웅/문학동네



"시합에서 져도, 머리가 터져버려도 상관없어. 15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아무도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거든.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두 발로 서 있으면, 그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순간이 될 거야."

챔피언 아폴로와의 시합 전날 벌벌 떨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록키가 한 말이다. 책에서 '글 쓰는 허지웅'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인 '버티는 삶'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가 말하는 버티는 것은 웅크리고 침묵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그는 단언한다. 버티는 삶이란 자기만의 방식과 힘으로 끝끝내 서 있는 것, 중간중간 다운당하고 얻어맞지만 끝나는 종이 울릴 때까지 흰 수건을 던져 항복하지 않는 삶이다.

또 책에는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세 개씩 하고 밤에는 고시원 야간 총무로 일하며 아침마다 피 흘리듯 어거지로 눈을 치켜뜨며 20대를 보낸 그의 기록이 있다. 소용돌이가 득한 이 시대에 한 사람의 평범한 사회인으로 세상을 견디고 더 나은 가능성을 꿈꾸며 써내려왔던 그의 진솔함을 느낄 수 있다.

이제 방송에서의 허지웅이 아닌 록키처럼 패배하고 오열하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두 발로 서 있기 위해 노력하는 글 쓰는 허지웅을 만나보자.

/황재용기자 hsoul38@

패션업계, 새 브랜드 론칭 바람



핸드백·속옷 등 가을 여심 유혹 나서

최근 패션 브랜드들이 잇따라 론칭하고 있다. 신선함을 무기로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은 트렌디한 감성을 전달하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올 가을에는 부드러운 느낌의 가죽 백이 인기다. 이런 추세에 맞춰 지난달 뉴욕 핸드백 브랜드 '오야니(orYANY)'가 국내 론칭했다.

오야니는 기존 가죽 가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컬러풀 색상을 앞세워 독특한 패션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더불어 최근 강소라 화보로 화제를 모았던 이탈리아 명품 란제리 브랜드 '파라(parah)' 역시 국내에 상륙했다.

파라는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신경쓰는 국내 여성들의 트렌드를 파악해 '이너 뷰티'를 전파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파라는 어두운 톤 제품으로 세련되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파스텔 톤 컬러로 트렌디한 느낌을 살려 고감도 이너웨어를 중시하는 여성들에게 어필할 전망이다.

◆트렌디한 감각을 살린 신규 브랜드

이번 시즌 놈코어가 대세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심플한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 얼마 전 명동에 대형 매장을 오픈한 '아가타 파리 패션'은 깔끔한 스타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패턴이 가미된 독특한 제품들도 구비해 다양함을 더했다.

여성복 브랜드 '올리브데올리브'는 겨울·가을 시즌을 맞아 퍼와 무스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에스무어(s'Muur)'를 론칭했다.

에스무어는 우아하고 럭셔리한 퍼의 느낌은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브랜드만의 러블리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 또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형성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패션홍보대행사 유끼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최근 런칭 브랜드가 많은데 이를 살펴보면 패션업계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며 "특히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은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브랜드의 장점을 내세워 국내 고객층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겨울 채비' 미리 미리… 이마트는 오는 23일부터 전기요·히터·매트 등 총 100여가지 난방용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선 보국전자 웰하우스 실속형 전기요, 러빙홈 사라믹 히터는 유사모델 대비 최대 50% 저렴한 2만9900~3만99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 제공

예능과 만난 유통업계, 덩달아 인기



유통 업계가 예능 프로그램과 협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기간 상품 판매하는 것은 물론 기획전을 상시 운영하면서 예능 프로그램과 덩달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CJ몰은 최근 tvN '삼시세끼'와 연계해 기획전 '삼시세끼 마켓'을 오픈했다. 삼시세끼는 배우 이서진과 2PM의 옥택연이 강원도 산골에서 자급자족하며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다. CJ몰은 삼시세끼 마켓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과 연계된 식재료를 비롯해 침구·내의·주방 조리도구 등 유기농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기 적합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G마켓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숍을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최근 한정 판매한 400회 기념 커스텀 모자는 1분52초만에 완판 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능 프로그램의 이슈가 프로그램에 노출된 제품 판매로 이어지기 보다는 관련 카테고리 상품의 매출과 연계가 된다"며 "프로그램명을 검색하면 해당 기획전도 노출돼 소비자들의 유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센스있는' 소개팅 장소

새로운 분위기 명소 식당 데이트족 몰려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天高馬肥)' 풍요의 계절이라지만, '짝'없는 청춘 남녀들에게는 유독 옆구리가 시려오는 계절이기도 하다. 올해가 가기 전 솔로대열에서 탈출하려면 '에지(edge)'있는 데이트 식사 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먼저 소개팅이나 데이트라고 하면 으레 품격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식상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조금 특별하게 '라멘집'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일본식 라멘 전문점 '잇푸도 서울'은 넓은 다이닝 홀과 더불어 은은한 조명, 레드 앤 블랙을 테마로 한 트렌디한 내부 인테리어, 배경으로 흘러나오는 모던 재즈 음악 등으로 세련된 분위기가 돋보인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자리잡은 '18steps'(사진)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핫한' 와인(에노테카) 바이다. 독특한 가게 이름은 '열 여덟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 매장엔 일명 '소울 푸드'가 있다. '강렬한 족발당수' '삐리삐리 치킨' '18! 젤 비싼 한우 스테이크' 등 보기만해도 즐거워지는 위트있는 이름의 메뉴들은 맛 또한 일품이다. 훈훈한 쉐프가 매장에서 직접 삶아낸 족발을 테이블 위에서 먹기 좋게 살을 발라주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제로 콤플렉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독특한 인테리어다. 천정을 제외한 모든 벽과 테이블이 메탈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전구 셋 외에 별도의 조명도 없어 각 테이블마다 놓인 초가 공간을 밝힌다. 음식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오너의 신념에 따라 매장 내에는 배경 음악도 흘러나오지 않아 묘하게 상대방에게 더욱 집중하도록 한다. /정영일기자 prms@

안전산행, 구급함 위치 확인부터!

동국제약,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최근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에서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제12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등 전국 10개 국립공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회사 OTC(일반의약품)사업부 임직원들은 각 지역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과 함께 산행안전수칙과 구급함의 위치가 표기된 국립공원 지도를 무료로 나눠주며 안전한 산행을 독려했다.

또 쯔쯔가무시병을 예방하기 위해 탐방객들이 털진드기 기피제 '디펜스벅스'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캠페인은 2009년 회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맺은 '건강한 산악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에 따라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전개되는 캠페인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화장품업계, '성분 스토리' 마케팅 활발

열매·씨앗·꽃 등 브랜드 대표 성분 우수성 내세워



뷰티 업체들이 각 브랜드 대표 성분들로 꼽히는 열매·씨앗·꽃 등이 지닌 스토리를 내세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추운 겨울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노르딕 베리'에서 5년에 한번 열린다는 '하라케케 씨앗'까지 독특한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희귀한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뉴트로지나가 선보인 슈퍼프루트 '노르딕 베리'(사진 오른쪽)는 북유럽 최북단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수분을 머금고 겨울내내 자생하는 놀라운 생명력의 열매다. 특히 야생에서만 한정 수량 구할 수 있는 희귀한 열매로 탁월한 수분 보유력과 오렌지의 5배에 해당하는 비타민 C, E가 들어있어 북유럽 선원들의 손상된 피부를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더샘의 스킨케어를 대표하는 성분인 '하라케케'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토착 식물 중 하나로 오랜 시간 피부 보습과 치유를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이 식물은 심고 3년이 지나면 8개~15개의 잎이 자라나고, 5년이 지나면 보통 3개의 꽃대가 자라나 뉴질랜드의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씨앗이 숙성된다. 이렇게 5년만에 귀하게 자라난 '하라케케 씨앗'은 꼬투리채 친환경 방식으로 손수확해 얻어지며 여기서 씨앗의 효능을 살리는 저온 압착 공법으로 '하라케케 씨드 오일'을 추출한다. 채취된 '하라케케 씨드 오일'(왼쪽)은 오메가 3·6·9이 풍부해 피부에 탄력과 건강함을 더해준다고 더샘 측은 설명했다.

이니스프리는 '제주 한란'에 주목했다. '제주 한란'은 제주에서 자생하는 난 60여 종 가운데 하나로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실물을 만나기 어려운 귀한 식물이다. 특히 추운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눈 속에 피어나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제주 한란을 오랜 시간 연구 끝에 귀한 '오키델릭서' 성분으로 탄생시켰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오키델릭서' 성분과 기능성 활성 성분이 노화와 피로에 지친 피부에 작용해 속까지 차곡차곡 영양을 쌓아주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뷰티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 성분에 얽힌 스토리는 그 성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코레일관광개발, '한국유통대상' 수상

코레일관광개발이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유통대상'에서 상생협력 부문 매경회장상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유통대상은 대한민국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는 시상이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관광·승무·유통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철도문화를 선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우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만족도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재용기자 hsoul38@



새 단장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츠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던킨도너츠 시청역점에서 리뉴얼 오픈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매장은 프리미엄과 신선함을 강조한 콘셉트로 'JBOD' 도넛·모닝콤보 등을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 /손진영기자 son@



르네상스 서울 호텔 '웨딩페어' 개최

29일, 가수 션의 스피치·디너코스도 마련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오는 29일 웨딩 페어를 개최한다.

웨딩 페어는 그동안 받은 고객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자리로 'Falling in Renaissance'라는 주제로 열린다.

저녁 6시30분 칵테일 리셉션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암살라(Amsale)드레스와 함께 선보이는 쁘띠 웨딩쇼가 진행된다.

또 가장 닮고 싶은 부부 중 하나인 가수 션의 웨딩 스피치와 웨딩 스페셜 디너 코스가 이어지며 해외 숙박권 등 풍성한 경품이 제공되는 럭키드로우도 빼놓을 수 없다. 문의: 02)2222-8600

/황재용기자

키즈 시장, 가구·침구 업계 경쟁 치열

저출산 속 수요 계속 늘어… 신규 브랜드·전용 매장 선봬



가구·침구 업계가 키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저출산에도 이 시장의 수요가 계속 늘면서 신규 브랜드를 내놓는 한편, 기존 구색맞추기 식으로 제품을 취급하던 업체들도 전문점을 오픈하는 등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가구 업계에 따르면 국내 키즈 가구 시장은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저출산 기조에 한 자녀 가정이 늘면서 '골드 키즈'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시장은 매년 30%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침구 역시 기능성의 경우 고가이지만 아이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불황 무풍지대로 통하고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 관련 시장을 대표할 만한 국내 브랜드가 없다는 점도 눈 여겨볼 만하다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이런 가운데 현대리바트는 최근 '리바트키즈'를 론칭했다. 학생용 가구가 대부분인 시장에서 3~6세를 메인 타깃으로 잡아 틈새시장을 노린다.

까사미아는 까사미아 키즈앤주니어'를 운영 중이다. 거의 모든 직영점과 대리점에 일부 상품이 입점되어 있고 최근 문을 연 구미중앙점은 전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침구 업계도 키즈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까르마는 베개·타퍼 등으로 구성된 키즈 라인을 론칭했다. 기능성 침구이기 때문에 타퍼의 경우 가격이 50만원대를 훌쩍 넘는 고가이지만 가격과 상관없이 유아의 수면환경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브자리는 어린이 전용 수면용품 전문 팝업스토어 '슬립앤슬립 포 키즈'를 3개월 간 운영한다. 이 매장은 보름 만에 총 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베개체험 특화 매장을 콘셉트로 다양한 침구류를 체험해볼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metro entertainment E

"촌스러운 낭만? 아날로그 감성이 좋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첫 주연 조정석

첫 시작은 감초 조연이었다. '건축학개론'의 '납뜩이'는 사람들에게 조정석(34)을 재밌는 배우로 각인시켰다.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으나 영화의 아쉬운 흥행 성적으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각인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연에서 출발했지만 조정석의 존재감은 하나씩 쌓이는 작품들과 함께 서서히 커졌다. 송강호와 콤비를 이룬 '관상'에서 보여준 즉흥적인 연기는 그가 지닌 재기발랄함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동시에 깊은 감정 연기까지 소화하며 그의 재능이 감초 조연에 머물기에는 너무 큰 그릇임을 보여줬다. 그리고 '역린'의 말없는 자객 '을수'는 조정석이 지닌 가능성에 더욱 큰 확신을 갖게 했다.

지난 8일 개봉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리고 있는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조정석의 5번째 영화이자 첫 주연작이다. 이명세 감독이 박중훈과 고 최진실을 기용해 1990년에 선보인 동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조정석은 과거 박중훈이 연기했던 영민을 연기했다. 뮤지컬에서 영화로 무대를 옮긴지 2년만에 주연을 맡았다는 것.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했던 영화에서 존경하는 배우의 역을 다시 맡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조정석에게는 의미가 큰 작품이다.



"매 작품 다 중요했지만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제가 좋아했던 영화, 좋아하는 선배님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제 필모그래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시나리오가 재미있어서 선택했어요. 훌륭한 원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남자 배우로는 단독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부담도 있었죠. 하지만 그 부담마저도 즐기려고 했어요."

극중 영민은 9급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시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지닌, 조정석의 표현에 따르면 "평범하면서도 비범하고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인물이다. 시나리오를 통해 만난 영민을 영화로 표현하기 위해 조정석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로 '공감대 형성'이었다. 스스로가 느낀 영민에 대한 공감대를 관객에게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조정석은 자신이 지닌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연기했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애드리브 연기가 빛을 발했다. 아내 미영(신민아)과 함께 간 바닷가 해변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뛰는 장면은 신민아가 뛰는 모습을 조정석이 따라하면서 만들어진 즉흥적인 장면이었다. '관상'에서 송강호와 함께 춤추던 장면을 기억한다면 이번 영화에서 조정석이 보여주는 재기 넘치는 연기에 웃음을 지을 것이다.

"전화할 때의 대사들도 재미있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주시더라고요. 애드리브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영화는 재미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영화는 재미 속에 진한 감동도 있죠. 여러 아이디어가 쌓이면서 영화가 더 재미있게 나온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신혼부부의 이야기지만 결혼보다는 사랑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정석도 "우리 영화는 결혼이 소재지만 큰 맥락에서는 사랑 이야기"라며 "판타지 같으면서도 리얼한 톤이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영화 속 영민과 미영의 이야기가 90년대 분위기의 촌스러운 감성이라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조정석은 "원래 시나리오는 더 낭만적이었다. 그 촌스러움이 멋있었다"며 "촌스러움 속 낭만에 공감해 준다면 정말 좋다"고 했다.

"아날로그 감성을 원래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예회 때 다른 친구들은 최신 드라마 주제가를 부르는데 저는 '비오는 날의 수채화'를 불렀거든요. 여행스케치 같은 노래도 좋아했고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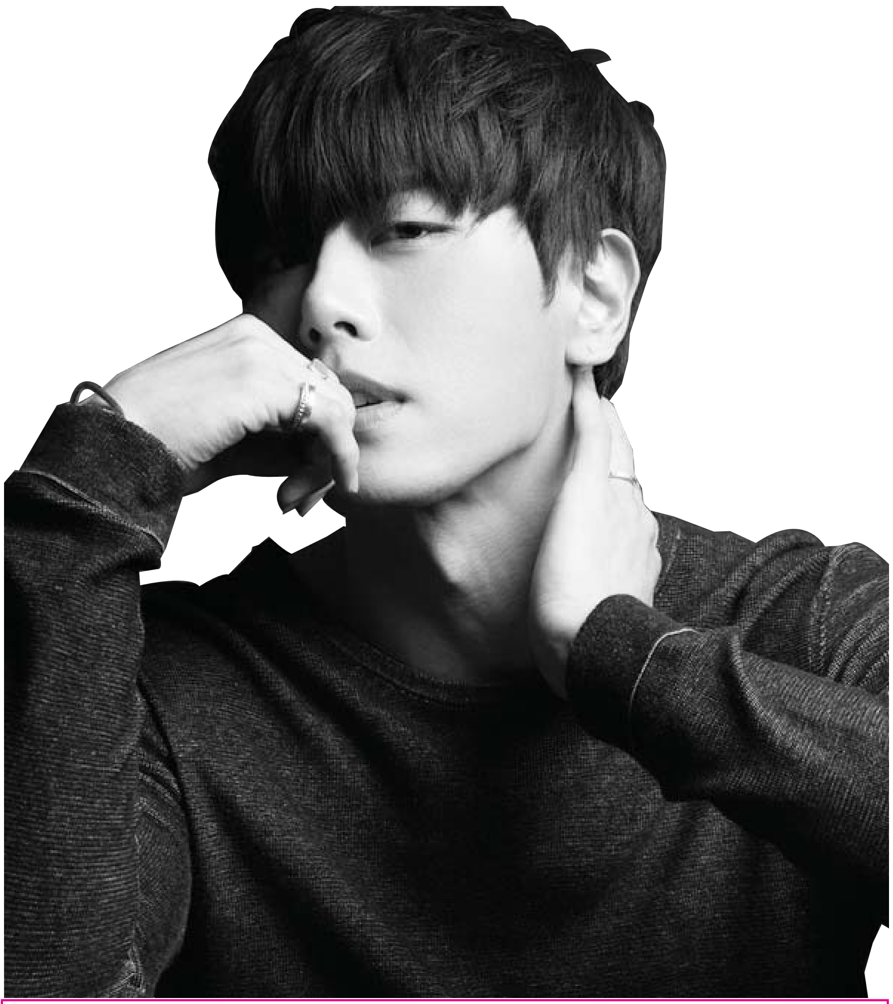
뮤지컬을 통해 배우로서 먼저 주목 받았지만 조정석이 처음부터 꿈꿨던 것은 영화배우였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5편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그는 이제 당당히 주연이 됐다. 그토록 바랐던 영화배우의 꿈을 이뤘지만 현재에 만족해 안주할 생각은 없다.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정석아 잘했어'라며 어깨도 두드려주고 싶고요(웃음). 나만의 성취감은 분명히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보람도 있고 각오도 힘도 더 생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도취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도취하게 되면 안주하게 되잖아요. 안주하게 되는 순간 퇴보할 걸 아니까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건축학개론' 이후 2년 동안 영화 5편
첫 주연·좋아하는 원작 리메이크 '영광'
"성취감 느끼지만 도취하지는 않을 것"



박효신 단독 콘서트 전국 투어 확대

서울 전석 매진 힘입어 지방까지 공연

가수 박효신(사진)의 단독 콘서트 '해피투게더'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국 투어로 확대됐다.

박효신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 15주년 라이브 투어-해피투게더' 서울 공연 티켓 오픈 이후 지방공연에 관한 팬들의 문의가 쇄도해 전국 투어로 규모를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효신은 오는 12월 13, 1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20일 광주, 24일 부산, 27일 대구, 31일 인천에서도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2년 개최한 '워 이즈 오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단독 콘서트다. 박효신의 음악 인생 15년을 총망라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박효신은 그동안 발표했던 히트곡은 물론 올해 초 발매돼 현재까지 음원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야생화'를 라이브로 처음 부를 계획이다.

소속사 측은 "박효신은 이번 공연을 위해 전체적인 공연 콘셉트는 물론 공연 타이틀·포스터 이미지·무대 연출·의상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전력투구 하고 있다"며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해준 팬들과 그 동안 행복했던 기억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 공연 티켓 예매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부산 공연은 같은 날 오후 8시, 광주 공연은 오는 30일 오후 8시, 대구 공연은 다음달 3일 오후 8시에 인터넷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시작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개최

데뷔 10주년 조명하는 자리

그룹 동방신기(사진)가 라이브 투어를 연다.

동방신기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가 오는 12월 6·7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TVXQ 스페셜 라이브 투어-T1ST0RY'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공연의 제목인 'T1ST0RY'는 동방신기(TVXQ)와 역사(HISTORY), 데뷔 10주년을 의미하는 숫자 1과 0을 조합한 단어다. 동방신기는 이번 콘서트에서 지난 10년을 총망라하는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공연의 티켓은 오는 28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동방신기는 지난 2012년 11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로스앤젤레스·산티아고·홍콩·상하이 등 세계 각 도시에서 'TVXQ 라이브 월드 투어-캐치 미'를 진행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 가수 사상 최초 5대 돔 투어, 해외 가수 최초 닛산 스타디움 단독 공연 개최,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단 기간 200만 관객 동원 등의 기록을 세우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공연을 개최했다. /김지민기자

'슈퍼스타K6'와 서태지의 만남?



엠넷 '슈퍼스타K 6' 톱 8이 서태지(아래 사진) 미션에 도전한다. /각각 CJ E&M·서태지 컴퍼니 제공

세번째 생방송 무대 서태지 히트곡 재해석



엠넷 '슈퍼스타K6' 톱8이 가수 서태지의 노래에 도전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슈퍼스타 6' 세 번째 생방송의 주제는 서태지 미션이다. 이날 8명의 도전자들은 서태지의 히트곡들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재해석해 부를 예정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서태지의 노래가 경연 주제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작진은 "서태지의 히트곡을 '슈퍼스타K 6' 생방송 무대에서 재조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태지의 많은 히트곡 중 톱8이 과연 어떤 노래를 선택할지, 그리고 이번 미션을 통해 톱8의 판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흥미로운 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진행된 두 번째 생방송 주제는 '러브송'이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브라이언 박이 탈락했으며 곽진언·김필·송유빈·장우람·버스터리드·임도혁·이준희·미카가 톱8으로 확정됐다. /김지민기자

박정현, 버벌진트와 입맞춤

듀엣곡 '달아요'에서 호흡

가수 박정현(사진)과 래퍼 버벌진트가 입을 맞췄다.

박정현은 21일 정오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싱크로퓨전 리나 박+브랜뉴 뮤직'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달아요'는 박정현이 지난 2007년 발표한 정규 6집 '컴 투 웨어 아이 엠'에 수록된 노래를 재해석 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달아요'는 버벌진트의 재해석으로 원곡의 보사노바 리듬 대신 R&B 스타일의 러브송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로 박정현의 속삭이듯 부드러운 목소리와 버벌진트의 읊조리는 듯한 래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사 역시 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을 그렸던 원곡에서 사랑에 빠진 남녀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이번 앨범에는 '달아요'와 선공개곡 '잠깐 만나'를 비롯해 '이걸 왜' 'ㄱ에 갇힌 시간' 까지 총 4곡이 수록돼 있다. 소속사 블루프린트뮤직은 "화려한 R&B 보컬리스트 박정현의 목소리를 살리되 브랜뉴 뮤직의 사운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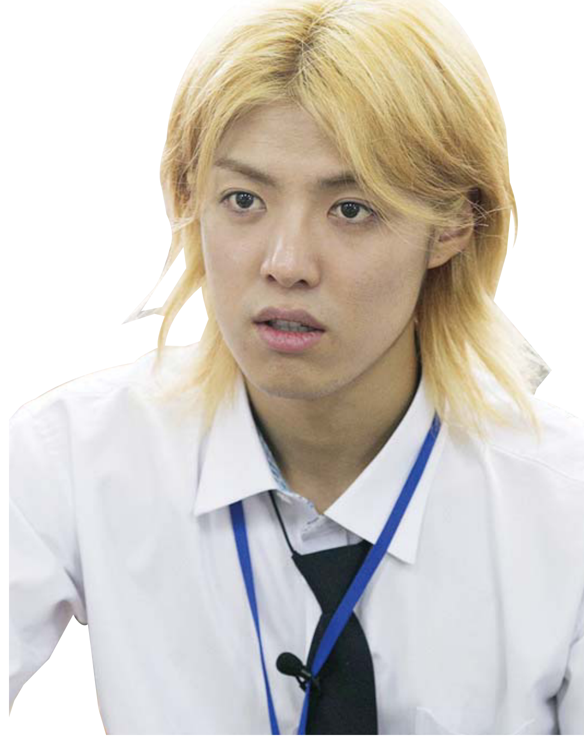
한편 '싱크로퓨전 리나 박+브랜뉴 뮤직'은 지난 5월 발표한 '싱크로퓨전 리나 박+팀89'에 이은 두 번째 싱크로퓨전 시리즈다. 싱크로퓨전은 박정현이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자신의 정규 음반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과 음악에 도전하고 있다. /김지민기자


"내 딸이 사라졌다.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이다!"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비밀
tvN 일일드라마의 부활!
신은경 김승수 차화연 류태준 이일화 효영
10월 27일 {월} 저녁 7시 45분 tvN 방송 * 매일 {월~목} 방송

요즘 대세는 1987년생 ★


주원


윤박


강남

주원·윤박·강남… 예능·드라마·영화 맹활약

만 27세 토끼띠. 1987년에 태어난 연예인이 드라마와 예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배우 주원은 KBS2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와 영화 '패션왕'에서 전혀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와 관객을 동시 공략한다. 주원은 '내일도 칸타빌레'에서 차유진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원작 일본 만화·동명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의 주인공 치아키의 무게를 이겨내고 있다.

잘생긴 외모와 까칠한 성격, 허당스러운 반전 매력이 어우러져 여심을 자극한다. 특히 차유진이 지휘봉을 잡고 천재적인 음악 실력을 보이는 장면에선 호평이 이어졌다. 실제 주원은 "지휘 준비를 5~6달 정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달 6일 개봉 예정인 영화 '패션왕'에선 코믹한 면모를 보일 예정이다. 반 친구들에게 답이 없는 패션 '무기명'으로 불리는 우기명 역을 맡았다. 바가지 머리에 어수룩한 표정이 변신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윤박은 드라마 속 캐릭터와 실제 모습이 달라 화제가 된 배우다.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비호감 캐릭터 차강재로 분했다. 실력 있는 의사지만 출세를 위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며 결혼하는 인물이다. 이에 윤박은 "골키퍼가 골 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차강재가 비호감 이미지를 벗으려는 것도 같은 논리"라며 "어떤 이미지든 개의치 않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러나 실제 윤박은 순수 청년이었다. 지난달 KBS2 '해피투게더3'에서 얼떨결에 열애를 고백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모습으로 '예능 청정지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출연한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순수하지 않다. 거짓말을 잘 한다"고 해 다시 한번 예능감을 보였다.

그룹 M.I.B 멤버 강남은 요즘 가장 뜨거운 남자다. MBC '나 혼자 산다'에 첫 출연하자마자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화제가 됐다. 이후 MBC '헬로 이방인',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속사정 쌀롱' 고정 멤버로 합류했다.

그는 일본 출생이며 본명은 나메카와 야스오다. 외국인이 예능 트렌드인 배경이 인기에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툰 한국어 맞춤법과 한국말이 활발하고 엉뚱한 강남의 성격과 어우러져 시청자에게 친근함을 주고 있다는 점이 대세 예능인으로 급부상한 강남의 매력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장혁·김우빈 '연애 세포' 자극

웹드라마 초호화 캐스팅 기대감↑



배우 장혁과 김우빈의 웹드라마 '연애 세포' 포스터(사진)가 공개됐다.

장혁과 김우빈은 서로 다른 매력으로 연기 변신을 했다. 장혁은 이소룡 도복을 입고 절권도 책을 들고 있는 동네 형을 표현했다. 김우빈은 날 선 눈빛과 서늘한 미소로 누군가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다. '연애 세포'에서는 김우빈의 총격 액션이 그려질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유정·박선호·남지현·백성현의 4각 러브라인도 예고됐다. 박선호(마대충 역)의 배에 누워 잠이 든 김유정(네비 역)과 남지현(서린 역)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백성현(천지운 역)의 모습은 작품을 접하는 누리꾼의 연애 세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연애 세포' 제작진은 "이번 포스터에는 작품에서 맞대결할 장혁과 김우빈의 모습이 담겼다"며 "두 사람은 착각할 정도로 캐릭터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애세포'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공개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웹드라마다. 연애세포 고양이 네비가 모태 솔로남 마대충과 톱스타 서린의 사랑을 위해 연애 과외를 한다는 내용의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다음달 3일 네이버를 통해 첫 회가 공개된다. /전효진기자

'라이어 게임' 성공 신호탄 예감

첫 방송 직후 온라인 포털 장악

tvN 새 월화드라마 '라이어 게임'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20일 방송된 '라이어 게임' 1회는 주인공 남다정(김소은)과 하우진(이상윤·사진)이 강도영(신성록)이 기획한 TV 쇼 '라이어 게임'에 출연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다.

남다정은 자신이 길에서 도와드린 할머니가 맡기고 간 가방 안에 5억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으로 집안의 빚을 갚을지 경찰에 신고할지 갈등하다 후자를 택했다. 그러나 경찰서 앞에 도착한 남다정에게 갑자기 '라이어 게임' 제작진이 나타나 방송에 초대된 사실을 알렸다. 최연소 심리학 교수 출신의 천재 사기꾼 하우진은 강의실에서 체포되는 모습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라이어 게임'의 기획자 강도영은 유명 애널리스트로 쇼 진행까지 맡게 되며 게임은 물론 참가자들까지 쥐고 흔들려 했다. 세 주인공의 강렬한 첫 등장에 '라이어 게임'은 첫 회는 방송 직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으는데 성공했다.

'라이어 게임'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주인공들이 100억원의 상금이 걸린 TV 쇼 '라이어 게임'에 출연하면서 펼쳐지는 일을 그린 심리 추적극이다. 원작 만화는 일본에서 이미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를 모았다.



원작 만화와 일본판 드라마가 큰 인기를 모았던 만큼 한국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라이어 게임'의 형식을 따온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도 이미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이에 대해 류재용 작가는 앞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더 지니어스'의 성공 덕분에 그런 유형의 쇼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드라마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한다"며 "일드를 리메이크한 것이 아닌 원작 만화를 드라마화 하는 것이다. 일드에는 우리도 원작 만화에 없는 나름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역시 나름의 해석을 가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드에 익숙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색깔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신선하고 기발하다

디즈니·픽사 수장 존 라세터 내한 라인업 발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2015년과 2016년 신작들이 21일 오전 CGV 왕십리에서 열린 라인업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토이 스토리' 시리즈와 '니모를 찾아서' 등의 픽사 작품들과 '라푼젤' '겨울왕국' 등을 만든 제작자이자 두 스튜디오를 함께 이끌고 있는 CCO 존 라세터가 참석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디즈니, 전통 속 신선함

'겨울왕국'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위력이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국내에서도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로 천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전 세계에서 1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디즈니 최고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했다.

'겨울왕국'의 인기를 이어갈 디즈니의 2015년 첫 작품은 '빅 히어로'다. 형이 죽은 뒤 로봇을 형제처럼 여기는 천재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어드벤처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화 속 비행 액션 영상을 일부 공개했다. 존 라세터는 "액션도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무엇보다 깊은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2016년에는 오랜만에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주토피아'는 포유동물들만이 살아가는 가상의 문명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존 라세터는 "디즈니의 고전적인 세계관이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느낌이 녹아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도 선보인다. '모아나'(가제)는 바다에서 태어난 한 여자 아이가 겪는 모험을 그린다. '인어공주' '알라딘' '공주와 개구리' 등을 만든 존 머스커 감독과 론 클레멘스 감독의 작품이다.

◆ 픽사, 기발한 상상력

반면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업'을 기점으로 다소 주춤한 행보를 보였다. 그나마 '몬스터 대학교'가 흥행에 성공해 체면을 살렸다. 매년 한 편씩을 꾸준히 선보였던 픽사는 올해 공개하려고 했던 '굿 다이노'의 개봉을 2016년으로 연기했다.

라인업 재정비를 통해 2015년 픽사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이다. '업'의 피트 닥터 감독이 연출하는 작품으로 11세 소녀 라일라의 머릿속에 있는 기쁨·슬픔·분노·두려움·혐오 등 5가지 감정을 캐릭터로 삼은 기발한 상상력의 작품이다. 존 라세터는 "기억과 감정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굿 다이노'는 2016년에 공개된다.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빗겨갔다는 독특한 상상력이 바탕이 됐다. 헤어진 가족을 찾으려는 공룡이 우연히 만난 어린 인간 소년과 함께 겪는 모험을 그린다.

픽사의 대표작인 '니모를 찾아서'의 속편 '도리를 찾아서'도 2016년 극장가를 찾는다. '니모를 찾아서'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단기기억상실증을 겪고 있는 도리가 가족을 찾아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존 라세터는 "'니모를 찾아서'의 주요 캐릭터들을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가족말고도 소중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픽사에서는 '카3'와 '인크레더블2'도 준비 중이다. 또한 내년 '토이 시리즈'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단편 '토이 스토리: 공룡 전사들의 도시'를 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디즈니에서는 '겨울왕국'의 주요 캐릭터들이 출연하는 단편 '겨울왕국: 피버'를 준비 중이다.



디즈니 신작 '빅 히어로' '모아나'와 픽사 신작 '인사이드 아웃' '도리를 찾아서'(왼쪽부터). /소니 픽쳐스 릴리징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스 코리아 제공



도지원·송일국 스크린 컴백

'현기증' 11월 6일 개봉… 김영애·김소은도 출연

올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화제작으로 손꼽혔던 영화 '현기증'(사진)이 다음달 6일 개봉을 확정했다.

'현기증'은 평범했던 가족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 이후 파괴돼 가는 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린 작품이다. 지난 2012년 제작비 300만원으로 만든 장편 데뷔작 '가시꽃'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돼 주목 받은 이돈구 감독의 첫 장편 상업영화다.

도지원은 극중 큰 딸 영희를 연기했다. 도지원은 "시나리오를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손에서 한 번 내려놓았다"며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을 밝혔다. 송일국은 영희의 남편 상호 역으로 함께 했다. 그는 "이돈구 감독의 전작 '가시꽃'을 본 뒤 시나리오도 읽지 않고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 김소은이 작은 딸 꽃잎 역을 맡았으며 김영애가 영희와 꽃잎의 엄마 순임 역으로 출연했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에서 첫 공개된 영화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제8회 아부다비국제영화제 신인 경쟁부문에도 초청됐다. /장병호기자

"부모님 세대 향한 헌사"

'해운대' 윤제균 감독 5년 만에 '국제시장' 제작

'해운대'로 2009년 천만 관객을 동원한 윤제균 감독이 5년 만의 신작 '국제시장'(사진)으로 극장가를 찾는다.

윤제균 감독은 '국제시장'에 대해 "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작품이다. 어려웠던 그 시절, 당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를 바라보며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만든 영화다"라고 밝혔다.

이번 영화에는 황정민, 오달수, 김윤진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윤제균 감독은 "연기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배우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시나리오 쓸 때부터 황정민, 오달수, 김윤진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 덕수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는 황정민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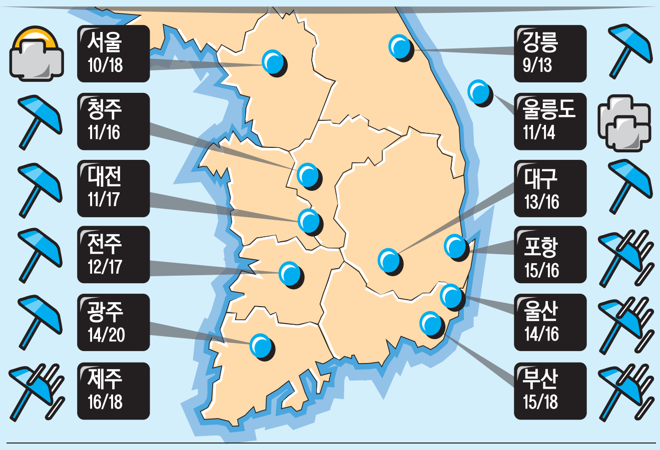
영화 촬영은 '해운대'와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진행됐다. 제목처럼 부산의 국제시장이 영화의 주요 무대로 등장한다. 윤제균 감독은 "부모님 세대에 대한 헌사에 알맞은 공간을 고민했다. 과거 피란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현재까지도 서민들의 일상이 담겨 있는 부산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시장'은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덕수(황정민)를 통해 힘들었던 시절 오직 가족을 위해 군세게 살아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오는 12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날씨

10/22水 일출시각 06:46 일몰시각 17:4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나이가 들면 가벼운 부상에도 대퇴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 감소에 의한 것으로 평소 우유나 콩류 등을 통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3				
						9	3	
2			4	9		5		
9					1			
7	4						5	8
			6					3
		5		6	8			2
	6	2						
				1	3	6		

		8		3			6	
			2		4		7	
					5			1
		6		4		9		
7		1		5		6		4
		9		8		5		
8			4					
	9		7		8			
	4			9		8		

스도쿠 정답

8	9	1	5	3	7	4	2	6
6	5	4	1	8	2	9	3	7
2	3	7	4	9	6	5	8	1
9	2	3	8	5	1	7	6	4
7	4	6	3	2	9	1	5	8
5	1	8	6	7	4	2	9	3
1	7	5	9	6	8	3	4	2
3	6	2	7	4	5	8	1	9
4	8	9	2	1	3	6	7	5

2	7	8	9	3	1	4	6	5
9	1	5	2	6	4	3	7	8
6	3	4	8	7	5	2	9	1
3	5	6	1	4	2	9	8	7
7	8	1	3	5	9	6	2	4
4	2	9	6	8	7	5	1	3
8	6	2	4	1	3	7	5	9
5	9	3	7	2	8	1	4	6
1	4	7	5	9	6	8	3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연인에게 지는 걸 못참는 성격인데 주장 이해받기 원하면 상대 존중을

Q Hey 캣우먼!
저는 남자에게, 그것도 사랑하는 남자에게 지는 걸 못 견디는 여자입니다. 여태까지 다섯 명의 남자와 연애하면서 점점 저의 자아나 성격이 더 강하고 드세지는 것 같습니다. 종종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충돌되면 저는 제 의견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과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말미에는 싸움으로 끝나고 맙니다. 전 저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면 아무리 남자친구라도 타협이 안 됩니다.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왜 유독 남자친구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냉이

A Hey 강냉이!
당신은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드세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독 남자친구에게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아가 강해서라기보다 내심 '이렇게 드센 나라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처럼, 사랑에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은 심리죠. 상대가 싫어할 걸 알면서 반복하며 상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그저 악취미일 뿐입니다.

또 당신이 착각하는 것 하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결론이나 정답이 하나밖에(즉 당신의 그것) 없다고 확신하는 편협한 시각입니다. 세상은 단순하기보다 복잡합니다. 하나의 현상에도 몇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로지 하나의 진실만 고집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가 나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서 그의 정신세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더 강한 자아가 아닐까요?

자신의 의견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존중 받고 이해 받기를 바라는 만큼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지극히 공정한 인간적 예의인 것입니다.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부인과 재결합 남자 잊어야 할까요 친구로는 무난, 연인으로는 힘들 듯

Q 안개처럼 여자 55년 1월 16일 음력 오전 7~9시
남자 53년 6월 11일 음력 4~5시

이분과는 3년 전 사귀다 헤어졌고 그러다 2013년 5월 다시 2번째로 만났습니다. 만날 때는 사업도 망한 상태로 어렵게 배달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난 이 사람이 좋아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기 하겠다고 사업을 시작 했고 동두천에서 살고 있어 난 그분과 지내기 위해서 내가 살던 동네에서 이 사람이 있는 곳까지 이사를 왔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부인과 다시 재결합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연락만 받고난 후 단절된 상태입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려도 되나요. 아님 잊어야 하나요.

A 사람의 만남이나 어느 관계에서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겨지는 법은 없습니다. 환경이나 마음은 필시 변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 봅니다. 그러기에 기다리는 미련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친구로는 무난하겠으나 연인이나 부부로는 사이가 두텁지 않고 도모하는 일이 항상 어긋난다는 인연입니다. 귀하는 외화 내빈하여 보이는 것은 화려할지언정 내면은 늘 고독한 기운이 감도는군요. 의리와 청백한 면이 높아 삶만 하지만 이런 면에 의해 사주에 관성(官星:남자)이 약하니 오히려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원하는 사랑의 결과는 이상일 뿐 유시무종(有始無終)하는데 이제부터 사주 60갑자에서 갑신(甲申)이라는 부호의 대운이 옵니다. 이시기에 접어들면 사주용어로 군겁쟁재(群劫爭財:무리를 이뤄 재물을 서로 빼앗음)를 이루니 돈 돈 하면서 쪼들리는 형편이 되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보니 지금 죽고 싶은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귀하와의 관계는 사주 상 서로 생해 주고 있으나 알 수 없는 살(殺)이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표리가 부동합니다. 다시 설명 해 본다면 남자는 운에서 생일지(生日支)와 합을 이루고 있으나 귀하와는 파살(破殺)을 당하고 있으니 갈등 속에서 할 수 없이 신의를 저버리게 되는군요. 운의 흐름으로 보아 사주상 묘절지(墓絶地)로 가게 되니 계속 살게 되면 암울함만 남게 됩니다. 남자 아들 결혼이 놓여 있기도 하겠으나 본처와는 운에서 본부인자리가 양지(養地)로 흐르므로 본부인이 운에서 승발하게 되어 더 이상은 귀하를 찾지 않습니다. 미련을 버리기가 어렵겠으나 마음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2일 (음 9월 2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아랫사람에 먼저 마음 열어라. **60년생** 정에 끌리면 생각의 균형도 잃는다. **72년생** 좋을 일 하다가 욕도 먹는 법~. **84년생** 한 우물을 파야 승산이 있다.



49년생 준비한 것은 부족함이 없다. **61년생** 술자리서 품위 잃지 않도록 조심~. **73년생** 바쁘게 움직이나 소득은 별로다. **85년생** 매일 하는 일도 가볍게 생각 말라.



50년생 몸도 마음도 편안~. **62년생** 어려움도 있지만 웃을 일도 있다. **74년생** 현장근로자는 안전사고 조심할 것. **86년생** 하고 싶은 일이 즐기니 기쁨이 충만하다.



51년생 모처럼 열정 쏟을 일이 생긴다. **63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할 것. **75년생** 고집을 부리면 적만 늘어난다. **87년생** 상사와 충돌은 무조건 피하라.



52년생 각종 유혹을 뿌리쳐라. **64년생** 최선을 다하면 없던 길도 생긴다. **76년생** 생각을 바꾸면 다른 길이 보임~. **88년생** 적당한 아부는 직장생활에 도움 된다.



53년생 불리할수록 맞불작전이 이롭다. **65년생** 배우자 감동시킬 일을 꾸며 보자. **77년생** 데드라인 무시하면 낭패 본다. **89년생** 정도보단 융통성이 필요~.



42년생 침묵 깬 사람 예의주시할 것. **54년생** 생각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긴다. **66년생** 사람을 얻으려면 자신을 낮춰라. **78년생** 생각이 많으면 전진 못한다.



43년생 사소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 **55년생** 친구가 어려우면 함께 비를 맞아라. **67년생** 공들인 일에 변수가 생긴다. **79년생** 남과 비교 말고 현실에 만족하라.



44년생 일이 꼬이면 한 템포 쉬어라. **56년생** 단기적 투자는 피해야 한다. **68년생** 공적인 자리선 기분 상해도 참아라. **80년생** 싱글은 소개팅 나갈 일 생긴다.



45년생 생각도 못한 수입이 생긴다. **57년생** 매사 때가 있으니 움직이지 말라. **69년생** 무슨 일이든 과속은 위험하다. **81년생** 변수가 많으니 결론부터 내지 말라.



46년생 쓸데없는 지출 줄여라. **58년생** 약속 어기면 돈과 신뢰도 잃는다. **70년생** 공적인 일은 공론화 할 것. **82년생** 일시적 어려움이니 비관적 생각 버려라.



47년생 밖으로 나가면 존경받는다. **59년생** 완전한 공짜는 없다는 말 명심~. **71년생** 자영업자는 주문 맞추기도 어렵다. **83년생** 배부른 소리하는 벗이 얄밉구나.

‘코리안 몬스터’ 다음 시즌은 ‘200이닝’

‘4일 휴식’ 등판 적응 쉽지 않아… 강정호 “메이저리그서도 통할 것”

국보급 투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사진)이 다음 시즌 목표를 ‘200이닝’으로 정했다.

지난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LA 다저스의 류현진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입국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시즌을 돌이키며 이같이 밝혔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2년차 징크스를 깨고 14승 8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하며 확실한 다저스의 3선발로 자리매김했다.

총 3번의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이번 시즌 예정됐던 경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듯 보였다. 류현진은 “올해 경기 수에 비해 이닝 수가 적었다”며 “3번의 부상이 있었고 조기 강판 경기도 있었다. 다음 시즌은 200이닝을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겨울에 운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상이 잦았어도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에 만족한다. 내년부터는 부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어깨 관리를 잘 할 생각”이라며 “이번 겨울 조금 일찍 운동을 시작해 부상방지 운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현진은 경기 중 불펜 피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마운드에 오르기 전 몸 상태 체크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부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류현진은 “불펜피칭을 한다고 해서 몸 상태가 다 체크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 2년 동안 해오지 않았다. 나름대로 선수들과 불펜피칭 외적으로 다르게 준비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어 “7년 동안 5일 휴식 등판이 몸에 적응된 상태다. 4일 휴식 등판인 미국에서 선수로서 몸에 느껴지는 변화는 어마어마하다”며 “바로 적응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5일 휴식 때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이 좋았던 건 사실”이라며 “미국에서 스스로 맞춰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기 강판 3경기에 대해서는 “그날 처음부터 공이 좋지 않았다. 지난해에 비해 투아웃 이후 실점이 많아졌고 피안타율이 높아졌다. 공이 좋지 않은 날 몸상태까지 안좋았을 때 무너진 게 아쉬움이 크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그는 또 “다저스 불펜이 경기 후반에 흔들리면서 어려웠던 경기가 많았다”며 “우리 팀이 7·8이닝 이후 지고 있을 때 한번도 이긴 경기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류현진은 주무기인 체인지업과 이번 시즌 후반 효과를 톡톡히 본 슬라이더에 애착을 보였다. 그러면서 신규 구종을 선보이기보다는 제구력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류현진은 “제구력이 그날 경기와 한 시즌을 편하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를 판가름한다”며 “지난해에 비해 체인지업 구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주무기가 체인지업임에는 변함이 없다. 체인지업에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구종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넥센 히어로즈의 유격수 강정호(27)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언론이 지적한 강정호의 수비에 대해 “절대로 수비가 약한 선수가 아니다. 당연히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한다”며 “만약 (강정호가) 다저스의 유격수로 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그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

한편 류현진은 국내 체류 기간 동안 광고촬영과 방송·자선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김용희·김태형, SK-두산 새 수장

2년 계약…두산 송일수 감독은 한 시즌만에 경질

가을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한국 프로야구 팀들의 감독 교체가 잇따르고 있다.

SK 와이번스는 21일 김용희(59) 육성총괄과 2년간 계약금 3억에 연봉 3억 등 총 9억원의 조건으로 감독으로 선임했다. 두산 베어스도 이날 송일수 감독을 경질하고 김태형(47) SK와이번스 배터리 코치를 제10대 감독으로 선임했다. 김태형 신임 감독은 계약기간 2년에 계약금 3억, 연봉 2억 등 총 7억원에 사인했다.

김용희 신임 감독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데뷔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1982년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뽑혔고 1983년 홈런 3위(18개)에 오르는 등 롯데의 4번 타자 자리를 지켰다. 1982년과 1984년 두 차례에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영원한 미스터 올스타’라는 영예로운 별명도 얻었다.

2006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을 지낸 뒤 잠시 해설자로 활약한 그는 2011~2013년 SK 2군 감독을 맡았고 올해는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춘 구단의 방침에 따라 육성·스카우트를 통합 관리하는 육성 총괄을 지냈다. 1군과 2군을 오가며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지도자라는 평이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김용희 감독(왼쪽)과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 /연합뉴스

김태형 두산 신임 감독은 서울 출신으로 신일고와 단국대를 졸업했다. 1990년 두산의 전신인 OB 베어스에 입단해 2011년까지 22년간 두산의 주전 포수와 배터리 코치로 활약했다.

김 감독은 2011년 시즌 중에 현 NC 다이노스 감독인 김경문 전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뒤 두산의 차기 사령탑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 마운드 재건을 우선시했던 두산이 김진욱 2군 투수 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기자 김태형 코치는 SK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3년 만에 다시 베어스 유니폼을 입게 된 김 감독은 구단을 통해 “우선 선수들의 자신감 회복과 프로선수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일수 감독은 3년 계약기간 중 한시즌만 소화한 채 두산을 떠나게 됐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미리 만나는 LPGA 신인왕

백규정-김효주… KLPGA 투어서 자존심 대결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차세대 스타 백규정(CJ오쇼핑·왼쪽 사진)과 김효주(롯데·오른쪽)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에 나선다.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광주시 남촌 컨트리클럽 동서코스(파72·6715야드)에서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 열린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메이저 대회다. 총 120명의 선수가 출전해 총상금 7억원을 놓고 겨루게 된다.

특히 19살 동갑내기 백규정과 김효주는 2015년 시즌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무대에 나란히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둘의 자존심 대결이 이번 대회 관전포인트다.

백규정은 지난 19일 끝난 LPGA 투어 하나·외환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다음 시즌 LPGA 투어 진출 자격을 갖췄다. 이에 앞서 김효주는 지난달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을 제패해 일찌감치 미국 무대 발판을 마련했다.

백규정과 김효주는 올해 KLPGA 투어에서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김효주는 6월 한국여자오픈과 지난 12일 마친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등 메이저 대회에서 2승을 포함, 시즌 4승을 달성했다. 백규정도 지난달 KL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3승을 올렸다.

LPGA 투어 하나·외환 챔피언십에서 단독 7위에 오른 김효주는 이번 시즌 KLPGA 투어에서 상금 10억원을 돌파해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대상 포인트와 평균 타수에서도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백규정은 신인왕 포인트 부문에서 고진영(19·넵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20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4.50점을 받은 백규정은 지난주보다 20계단 도약해 13위다.

세계랭킹 1위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며 2위는 ‘골프여제’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랭크됐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박인비도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스크린 골프대회에서 이름을 날린 최예지(19)도 추천 선수로 필드에 나선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22일

인삼공사	16	11	18	16	**61**
SK	23	14	13	14	**64**

프로배구 전적 22일

한국도로공사	3	2	KGC인삼공사
OK저축은행	3	1	삼성화재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